

예수는 구신가? Who is this Jesus?

마이클 그린 지음

By Michael Green

원제 : Who Is This Jesus?

(Hodder & Stoughton Publishers, 1991)

저자,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 은,

1930 년 영국에서 태어난 신학자이자 국교회 목사로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전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리전트 대학의 전도학 교수로 일하면서

강연과 저술활동을 겸하고 있는 그린은

‘마음이 따뜻하고 정열적인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알기 쉽고 활기차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책들로는

<결단의 찰나>(IVP), <초대교회의 전도>(말씀사),

<도피하는 현대인>(말씀사),

<현대 전도학>(기독교문서선교회),

<나는 사탄의 멸망을 믿는다>(장신대 출판부),

<설마 농담이겠지>(목회자료사) 등이 있습니다.

차례

글쓴이의 말

한국의 독자들에게

- 1 장 도대체 예수가 누구입니까?
- 2 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3 장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 4 장 그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 5 장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 6 장 그가 주장한 바는 무엇입니까?
- 7 장 그는 왜 죽었습니까?
- 8 장 죽었으면 끝 아닙니까?
- 9 장 정말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 10 장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 11 장 예수에 관해 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까?
- 12 장 복음서는 믿을 만한 책입니까?

저자의 말

서기 1990 ~ 2000 년의 10 년 간 로마 카톨릭, 루터교, 성공회

를 비롯한 여러 교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는 일, 이른바

전도에 특별한 관심을 두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나는 최근에

<지역 교회를 통한 복음전도>(Evangelism through the Local Church)

라는 두툼한 책을 썼는데, 출판사 두 곳에서 그 속편 격으로 예수에

관해 간단명료하고 지극히 평이한 책을 하나 쓸 수 있겠느냐는 제의

를 받았습니다.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에 관해 알려줄 수

있는 책, 그런 책이라면 전도지처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행히 리전트 대학에서 내게 허락해 준 안식년의 덕을 입어 결심

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신약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그런 책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에 관한 모든 서술에

깨알 같은 각주를 달아 증거를 갖다대고, 성구를 몽땅 있는 대로 인용하고픈

욕망이 있었는데 그랬더라면 이 책 자체가 무가치해졌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기독교 이후' 서구사회의 틀에 맞추어 너무 많은

것을 가정해 버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는 일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중심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만남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원고를 주의 깊게 읽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의해 준 데이빗 와브르,

캐롤린 아미지, 린 맥렐란드, 김 크로스, 그리고 제인 할로웨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90 년 6 월 마이클 그린.

한국의 독자들에게,

몇 년 전 어느 학회에서 한 한국인 형제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19 세
기 한국에 복음을 가져온 사람은 나와 동향인 웨일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말도 할 줄 몰랐고 한국에 오자마자
금방 목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기록된 전도지를 뿌렸
던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늘 그랬듯 그가 흘린 순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
다. 그가 뿌린 전도지들은 많은 이들에게 읽혀져서 그들의 가슴을 찢렸
으며, 마침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유수의 교회로 성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인의 작은 책이 한국어로 옮겨지게 되어 기쁩니다. 이 책은
예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관심이 있으며 그를 더 잘 알고 싶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예수와의 인격적 만남을
체험하게 된 것은 저에겐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복음이 이미 번성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 책의 영향력이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이 책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 주시기를 기원합
니다.

오순절에,

마이클 그린

1 장. 도대체 예수는 누구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늘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 말은 욕설이나 저주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분노나 실망의 감정을 ‘지저스’라는 말로 뱉어냅니다. 50년 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신성 모독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늘상 듣는 표현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를 창시한 분의 이름이 제일 흔히 쓰이는 욕지거리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까? 마호메트나 붓다, 심지어 레닌이나 마우쩌퉁에게도 이런 대접을 하는 이는 없는데 말입니다. 현대 서구인들은 예수에 대해 난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세련된 일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연회 석상에서 예수를 언급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 분은 말이야.....” 곧장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대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데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예수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보십시오. 즉시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가로막아 버리든지, 최소한 어색한 분위기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간디나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라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최악의 사태라고 해 봐야 조금 특이한 사람으로 비치는 게 고작일 겁니다.

만약 예수가 악한이나 호전적인 사람이었다면, 또는 살인마나 호색꾼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이런 태도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박력이 넘치면서도 그지없이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무명의 작가는 <어느 고독한 생애>라는 짧은 글에서 예수가 살
았던 삶의 핵심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그는 이름없는 마을, 시골 여인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른 살이 되도록 한촌의 목수로 일했으며, 3 년 간은 떠돌이 전도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책도 쓴적이 없고, 직함도 없었고, 가족도 집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학도 가지 않았을 뿐더러 큰 도시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200Km 이상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위인들이 할 법한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 외에는 믿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를 적대시하는 여론의 물결이 몰려왔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서른셋
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도망가 버렸고, 그는 원수들에게 넘겨져 재판과 모
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강도 틈에 끼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
다. 죽어가는 그에게 남은 재산이란 벗겨진 옷 한벌뿐. 사형 집행인들은 그
옷을 놓고 노름을 벌였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묻힐 곳이 없어 남의 무덤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나마 친구의 자비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년이 열아홉 번 지났습니다. 지금 그는 인류역사의 중심에서
인류의 진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상을 행군했던 모든 군대들, 대양을 항
해했던 모든 해군들, 일찍이 소집된 모든 의회들, 땅을 통치했던 모든 제왕
들, 이 모두를 합쳐 놓아봐도 그들이 이 땅의 삶에 미친 영향은 고독한
이 한 분 짧은 생애의 영향력을 따르지 못합니다. .

예수, 그분의 영향

이 글을 쓰는 지금 동유럽 질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복잡다단하지만, 예수의 영향력이 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동유럽을 휩쓸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갈구는 바로 그 '고독한 생애' 때문에 촉발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신앙인들은 무신론자들의 폭압적인 박해 밑에서도 70년 간을 견뎌왔습니다. 현재 6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앙 때문에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신병원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은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바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상징되는 개혁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폴란드 자유노조 역시 인간 영혼을 압살하려 드는 독재정권에 맞선 기독교 세력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조지아 등 공화국들의 독립운동도 교회를 중심으로 민중들이 결집하면서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무신론과 정치적 억압 하에서 그들에게 투쟁력을 불어넣어준 것은 기독교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루마니아 독재자의 악랄한 폭력정치를 종식시킨 민중저항의 불꽃도 한 목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라이프찌히의 조그만 기도모임은 결국 동독의 평화혁명이라는 폭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보다 예수의 영향력을 잘 말해줄 수 있는 예가 과연 있을까요? 그 고독한 생애는 인류에게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떠나 사회문제를 살펴보아도 그의 자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다미엔 박사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와이 몰로카인 섬에 집도, 음식도, 약도 없이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미엔은 결국 자신도 나병에 감염되어 죽는 날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와 그 동역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보좌관이던 찰스 클슨은 그 사랑에 압도되어 자신의 일생을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사역에 바치고 있습니다(거의 회심이야기는 <거듭나기>라는 제목으로 홍성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 편집자 주). 과거의 죄악을 청산한 데이빗 윌커슨은 세계 최고의 약물중독자 재활사업을 이루어냈습니다. 경찰들도 접근을 꺼리는 홍콩 빈민굴의 범죄지역에 뛰어들어 이른바 '사회의 쓰레기들'을 위해 헌신하는 잭키 펠린저의 경우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의 헌신은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를 번성케 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충성심이 이런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가능케 할까요? 예수에게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에 대해 알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기막힌 일입니다. 이 지구상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다니요! 만일 유명한 운동선수나 정치인, 인기 배우, 혹은 천재 과학자를 만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런 만남이 허락된 것에 열광하면서 그 사람들에 관해 살살이 알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에 관해 알기를 꺼리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그에 관해 누군가 말을 붙여올 때 당황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간은 지존자를 보게 되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를 수 있는 지선의 경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4 복음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훌륭히 그려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담겨있는 성경이 세계 제일의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독해가 불가능한 책'이라고 불리울 지경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예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에 관해 새롭게 생각해 보기를 꺼릴까요? 교회 때문입니까? 예수가 창시한 그 단체는 예수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수많은 유혈희생을 낸 십자군 원정, 잔인무도한 종교재판, 종교박해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예수의 모습과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명백해집니다. 교회의 위선에 상처받고, 특색 없는 교회의 모습에 따분해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 반항하던 때를 회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분열상, 지도자들의 타락, 믿는다는 사람들도 별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 등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에게 무관심한 이유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삶이 던져주는 빛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에게 지나치게 접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우리 인생관과 생활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며,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빛으로 나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일찍이 예수가 지적한 바입니다(요한복음 3:19-20).

그것도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이 달고 있는 여러가지 느낌들이 인간의 자유와 잠재력에 어떤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까? 그 이름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즉 우리의 유한성과 책임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잠재력을 준 그 신을 대면해야만 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고 싶지 않

은 가능성들일 것입니다.

위에 예로 든 세 가지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를 꺼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어릴 때 산 타클로스과 함께 내던져 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의 3분의 1가량이 그 예수가 아직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심을 믿고 있으면, 그의 팔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 그가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심을 믿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알리는 동시에 가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전소 한두 개가 고장났다고 해서 전기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완벽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우리 삶의 변화는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삶과 죽음이라는 궁극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가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초대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의 인격 자체를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들여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절대로 시간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의 인격에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것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인류가 일찌기 받은 교훈들 중 최고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가 자신에 관해 내세운 주장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서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그는 훌륭한 스승이었습

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입니까?

금세기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솔직히 바라보십시오. 폭력과 증오, 탐욕과 잔인함, 자연계를 오염시키고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는 우리의 뻔뻔스러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근과 탐욕에 더해 가정, 사회, 국가의 부패와 분쟁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인간의 가슴 속에는 사랑과 용서, 삶의 의미와 화해, 평화, 희망을 목말라하는 부르짖음이 숨어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에 관해 새롭게 생각해야 할 두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 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에 관해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교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온통 다른 것만 가르치는 듯합니다. 최소한 서구에서는 이제 교회출석자 사회 소수집단의 관심사로 전락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삶에 관해, 그가 누구였으며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왜 그를 따르던 이들이 그를 경배했는지, 그가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간결 명확하게 서술한 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제 이 책이 예수에 관한 무지와 오해를 씻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의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 권의 책을 서고에 보태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2 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답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복음서 (그의 삶에 관해 친구들이 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12 장을 보십시오)에서 만나는 예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상식적 이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른바 아이들 이야기에 나오는 '온유하고 양순한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인생을 좀 즐기라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하는 무서운 재판관 역시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진 생기 없는 그림도 아닙니다.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는 눈부실 정도로 생기에 넘치고 비할 데 없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궁금해 못 견뎌 하는 것들 중 상당수는 복음서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었는지가 그 일례입니다. 예수가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의 피부색이 거무스레했고 눈은 갈색에 코는 매부리코였을리라는 짐작은 갑니다. 길게 기른 검정색 머리털은 잘 손질되어 있었을 것이고, 보통 그렇듯이 턱수염을 길렀을 것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모습은 당시 동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와 유사한 아람어였으며, 그가 자라난 갈릴리 지방에 흔한 북부식 억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틀림없이 희랍어와 약간의 라틴어도 말할 수 있었으며, 히브리 경전에 매우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의 옷차림은 소매 없는 내의와 허리띠, 외투와 샌달,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그의 외모에 관해 알아낼 수 있는 전부입니다. 복음서는 이런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키, 눈동자와

머리 색깔, 심지어 그의 나이와 체력 조건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관점에서는 예수의 외양은 중요하지 않고, 그의 성품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에 관한 한 복음서는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점은 예수가 누구에게나 좋은 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먼거리를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판사와 직업군인이 있었는가 하면, 어부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와의 만남에 속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엄격한 계층으로 구별하는 유대교의 금기사항들을 예수는 과감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최고위층에서부터 최하층민까지 그의 교분은 거침이 없었고, 성전에서나 선술집에서나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군중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외딴지고 소박한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나 교양 있는 사람이 모두 그에게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수는 일개 목수의 신분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최고 수준의 신학교육과 최고위층의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 같은 인물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적대관계에 있는 인접 지역에서 말할 수 없이 부도덕한 여인을 만났을 때, 대화를 통해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누렸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형적인 남자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매일 감사하던 문화를 생각할 때 예수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워하면서 어린이를 성인이 본답아야 할 모범으로 삼은

그의 태도는, 아이들을 귀찮은 방해물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엄숙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번째로 특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통치자이기보다 그의 ‘아버지’(심지어 그
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였고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
를 나누시는 분이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문득 모습을 감추
어 기도 시간을 받친 예수의 모습,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것 외
에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놀라운 주장, “나는 아버지를 기
쁘게 해 드리는 일만 한다”라던 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
나님을 너무나 실재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이따금씩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이 그 일례입니다. 그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이
닙니다. 단지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재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너무나 친밀했으므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막힐 것이 없었던 것
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 그의 기도와 말, 그의 행적은 이 주장
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예수를 만나본 이들은 자신들이 하
나님을 만났음을 느꼈고, 그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예수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으므로, 사람들은 그에
게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는 처음으로 하나님
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삶이 보여주는 탁월함입니다. 완벽한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삶은 인간 됨됨이 이상으로서 빛을 발합니다.

그의 성품에서는 악의 편린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지 않은 미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람들을 돕느라고 기진한 그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가 사람들을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에 그을리고 갈증에 시달릴 때에도, 그에게는 불쌍한 여인과 대화하고 도와줄 마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맞아 그와의 우정과 그가족을 향한 연민으로 눈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눈먼 이에게 손을 대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 치료해 주고, 참혹한 질병을 두려워 않고 병자를 고쳐주는 예수의 자비심은 참으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어린아이에서 귀족에게까지, 동족에게 따돌림당한 외로운 세리에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인에게까지 골고루 미쳤습니다. 정통 보수주의자 니고데모, 친 로마 성향의 마태, 과격 투쟁노선에 있는 혁명과 열심당원 시몬은 그토록 다른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의 기쁨과 생기, 따뜻한 마음과 올곧은 삶의 태도, 언제나 남들에게 향하는 배려, 그리고 언행에서 비치는 위엄 등은 모든 도덕적 미덕을 사람들의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나타내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마음과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 하나하나가 그토록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그렇게 귀히 여겼습니다. 그만큼 남을 위한 사랑을 지치지 않고 쏟아부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수는 참으로 모든 이가 바라보고 좇아가야 할 이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들추어 보면 예수가 지닌 권위가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예수의 연설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 제자 마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가복음 1:22). 율법 학자들은 당시의 성직자들로서, 오늘날의 학자들이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근거를 들이대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남의 의견을 인용하고 각주를 달기보다는 스스로의 권위를 선포하는 표현, 즉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라는 즐겨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 사변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지닌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나타나는 권위였습니다.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 대제사장의 권한하에 있는 공인된 시장터를 뒤집어 엎고 장사치들을 내몰았던 이 젊은 목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온몸이 마비된 환자에게 손을 뻗으라고 명령한 즉시 그를 낫게 할 수 있었던 이 사람, 무덤 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대며 비참한 생존을 유지하던 귀신 들린 사내를 어둠의 세계에서 끄집어 낼 수 있었던 사람, 폭풍우가 무슨 생명체라도 된다는 듯 명령을 내려 잠잠케 한 사람, 조그만 떡덩이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갖고 5 천 명을 먹이라고 태연히 명령할 수 있었던 이 사람,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권 로마 총독을 향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총독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다고 말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의 권위는 가히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갈피갈피에서 약동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그의 자유입니다. 것처럼 자유로운 인간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노동자 계급으로 태어났지만 계급의식의 편견에서 자유로웠고, 로마 통치하의 식민지 출신이면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완전히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구약성경을 철저히 믿으면서도 환경에 따라 그가 가르침을 적절히 재해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분명 경직된 제도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방자였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열등의식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고, 그들의 인격을 파손하는 영적 질병과, 건강을 쪼먹는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는 또한 「교만」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권위의식이나 거짓 겸손, 어깨의 견장이나 유별난 금기 따위는 애당초 그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유로운 인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칼을 꺼내지도, 어디에서 투표를 한 적도 없지만, 그의 가르침은 세상의 질서를 개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가 직접 노예를 해방하거나 여성들의 법적 권리를 찾아준 적은 없지만, 그의 태도와 가르침은 서양사를 통틀어 이 두 가지 사회개혁운동에 변함없는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으면서도 전세계를 포용하는 세계선교운동의 근원이 되었고, 피부색과 계급의 무너뜨리는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본인이 원했다면 자기 등지만 가꾸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한창 젊은 나이에 삶을 마쳤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군대의 손에 잡혔기 때문이거나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얽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 보겠지만 진정한 이유는 그 자신이 표현한 역설적인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9 절) 그는 신비스러우면서도 우리의 주의를 잡아끄는 한 구절에서,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마 20:28 절)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이 스스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받는 예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슬에 묶이고 눈을 가리운 채 법정에서 그의 모습. 그와 그를 고소한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잡힌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질투와 교만, 시기심과 탐욕, 스스로 의롭다 하는 위선적 자기 만족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하는 오늘날, 예수님은 가장 자유로웠던 인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유 못지 않게 인간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수(精髓)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영화에서 보는 사랑 놀음이 아니라, 강인하며 죽음을 모르는 사랑, 곧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에 대해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사랑이 솟아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그 전체가 지칠 줄 모르는 사랑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향한 이기심 없는 사랑에 잠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절)

그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재산에 묶여 제자 되기를 결심하지 못했던 부유한 귀족에게나 길가에 앉아 도와달라고 외치던 거지에게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사회의 하류층, 사기꾼, 창녀를 향한 그의 사랑,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소외된 집단, 맹인, 어린아이, 무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끔찍한 상처를 지닌 나병환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는 나병환자들을 실제로 만졌습니다. 정신 나간 것이 아닙니까. 원수를 향한 사랑은 또 어떠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인들을 위한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 그가 직접 실천한 그 사랑은 곧 그의 제자들이 지닌 특징이기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절) 비극적인 것은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사랑에 아득히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심의 어둠 속을 헤맬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한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떤 때만이 아니라 「항상」,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3 장.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는 세계사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탄생일은 달력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가치관은 서양 법체계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교육 제도의 상당부분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글을 가르쳐 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빈민과 병자, 굶주린 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나 병원제도의 근원에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대체 어디서 시작된것입니까? 여러가지 각도에서 이 질문의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 치하의 팔레스타인

가장 분명한 사실은 폭 80km 길이 200km 정도의 크기인 유대 땅, 로마 제국의 한 귀퉁이에 자리한 정치적 요충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린 인물은 헤롯 대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난폭한 인물은 그 잔인성과 더불어 건축에 기울인 열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독자적인 통치자는 아니었고, 세계 최강의 권력자 Augustus Caesar(아우구스투스 씨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천재적 군인이자 탁월한 정치가였던 아우구스투스는 BC 31 년 적수를 모두 패퇴시키고 로마 제국의 전권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변방국들에게 자치군주를 허락하면서, 이 나라들이 제국 영토 바깥에서 지중해안의 안전을 위협하는 야만족들을 저지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바로 이런 복속군주들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의 통치 말기, BC 7 년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AD 1 년에 탄생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역사의 우스꽝스러운 진실을 말하자면, 수백년 후 모든 연대를 계산하던 수도사가 계산에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정확한 연도는 BC 4 년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보다 3 년 전인 BC 7 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약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지않은 요셉의 출생지 베들레헴에 인구 조사 등록차 내려가 있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제국 전역을 통괄하는 조세 제도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명과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아프로그라페, aprographe)는 그 준비 단계였고, 몇 년 후인 AD 6 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과세(아포티메시스, aprotimesis)가 이루어 졌습니다. 사실상 로마 전역을 통틀어 유대 땅만큼 골치를 썩인 곳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총독'을 두어 직접 관할에 나섰던 것입니다. 유대의 북부지방인 갈릴리는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이 부여된 준(準) 독립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복음서에 몇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를 통틀어 유대는 로마의 피종복지로 남아있었고, 갈릴리 역시 로마 군인이 늘상 주둔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유대인들의 일상사와 정치관도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열심당」(젤롯)운동은 로마와 관계된 모든 것에 격심한 저항을 편 국수주의 운동이었는가 하면, 정반대의 입장에 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지주들로 대표되는 이른바 '정치적 현실주의' 극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까워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구성해 준 자치기관 '산헤드린'의 다수세력이었습니다. 내정을 관할하는 이 기관은 71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의장 자리는 언제나 대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열심당 및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3 대 세력을 구성하는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서 매우 두드러진 위치에 있는데, 그들은

아주 독특한 생활방식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인을 증오했지만,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무장항거를 벌일 만큼의 정열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습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해서 로마를 붕괴시키실 것이고, 그 때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새로운 왕국을 통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상 생활에서 매우 정교한 제의를 지켰습니다. 일찍이 주어진 모세의 율법과, 그 이후 장구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규례들 양쪽을 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의 압제를 쓸어버리고 평화와 번영의 날을 새롭게 시작하실 메시아의 도래를 앞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네번째 세력은 사해 근처 남부 사막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해사본을 우리에게 남겨준 이 집단은 이스라엘 전체가 배교(背敎)의 죄를 짓고 있으며 자신들만이 참된 신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막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릴 장소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로마인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사악한 사두개파 제사장들을 뿌리뽑은 뒤 자신들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AD 70년 로마에 의해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이상이 예수님 당시 이 조그만 땅에서 벌어지고 있던 갈등의 모습들입니다. 나라는 불안으로 어수선하고 헤롯과 로마 정부는 증오의 대상이었으며,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아브라함으로 소급되는 수천년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단마다 그 이해는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어차피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깐요.

목수 혹은 건축 시공업자였던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등록하러 간 것은 바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리아는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관은 만원이고 모두들 호적 등록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
다. 다행히 어느 여관 주인이 그들을 동정해 가축들을 채우는 마굿간에 채워주었습니다. 그 마
굿간 구유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
다. 이곳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 희망찬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으며, 이미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라는 질문에 앞서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을 통해 세계 만민이 축복에 이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상당부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발흥과 번영을 통해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수백년에 걸쳐 확립된 왕권도 만족을 줄 수 없었고, 왕 중의 왕이라 할 다윗 조차도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왕조의 계승과 더불어 국정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마침내 바벨론 유배로 그 종말을 맺은 것이 BC 600 년 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정에서도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언자 나단을 통해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삼하 7:12 절, 13-14 절)

이 약속은 어느 왕에게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이를 그분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700 여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라 하리라.(사 7:14 절)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적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개인과 국가의 죄에 대한 용서임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2:13-53:6 절)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종을 가리킨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이룰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그분이 정한 때가 되면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베들레헴이요, 그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31:33-34 절)

구원자의 출생지와 업적에 대한 이 예언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줄 혜택을 보십시오. 죄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책에 기록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됩니다. 이 약속을 성취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이루실 그분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대감 속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묵은 이 약속을 성취할 이가 드디어 태어나리라는 기대가 과연 허망한 것이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가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환경

지나친 기대였겠습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범세계적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면 이 당시만큼 좋은 시기의 조건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주의 근원과 목적이 되시며 도덕법을 지으신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의 신조는 그들이 흩어져 장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그들이 견지한 불굴의 신앙과 거룩한 경전, 경건한 예배 의식과 도덕적 삶에는 내심 찬탄과 존경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전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인류가 것처럼 강력하면서도 공정한 통치자 밑에 통합된 적은 일찍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실용주의에 투철한 그들이 성취한 통신 체계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느 문명도 능가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여행은 용이하고도 안전했으며 복음은 제국 영토 전역에 쉽사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어의 존재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그리스어는 오늘의 영어와 같은 세계 공용어로서,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라는 여건에 덧붙여져서 그분의 출현을 준비하는 역할을 손색없이 수행해 냈습니다.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결코 망상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희한한 사건들

예언자들의 말과 당시의 시대상황 외에도 「기름부음 받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부채 질한 여건이 또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했듯이 말구유에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날 즈음 몇 가지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선 그의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 친권자이기는 해도 그를 낳은 생물학적 부친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각기 독립된 이 두 기록은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 역사에 의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교도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처녀 잉태 설화의 일종일까요? 아니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이사야 7 장 4 절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이사야 본문에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때로 단순히 '젊은 여인'을 뜻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해석이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잉태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리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미리 통지 받았다고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이전 시대에 흔했던 '턱수염 난 신과 가녀린 처녀의 동침 이야기' 따위와는 애당초 궤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처녀'가 갖는 애매함에 관해서는 복음서를 쓴 이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 한 단어의 해석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남달랐다는 것은 어떤 자료를 검토해 봐도 추론이 가능한 일입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른 점, 랍비들이 그를 '혼인한 여인의 사생자' 혹은 '음녀의 자식'이라 지칭한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여인에게 난 자'라고 하고 심지어 코란에서까지 예수님을 '이사 이븐 마리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라고 부른다는 점은 모두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힘입어 처녀에게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지지해 줍니다. 그가

죽은 지 불과 몇 십년이 되지 않아서 그의 동정녀 탄생 교리가 초대교회의 신조에 들어갔던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전무후무한 일을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예수님의 탄생이 특이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잉태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까?

예수님의 적대 세력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시는 일에 이런 기적으로써 인간 역사에 개입하기로 정하셨다는 설명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이해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그에게 어울리는(반드시 필연적이진 않더라도) 방법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의 탄생과 관계된 두번째 기적은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밝은 별입니다. 마태복음은 점성술사(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이상한 별을 관측했고 그 별이 가리키는 분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찾아왔다고 전합니다. 목성과 토성 두 행성이 물고기 성좌에서 만난 BC 7년의 천문현상은 794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아주 빛나는 새 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별들이란 고대인에게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목성은 세상의 통치자요, 토성은 팔레스타인의 별이었고, 물고기 성좌는 말세를 뜻했습니다. 따라서 그 천문현상은 곧 세상을 다스릴 분이 팔레스타인에 오실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알게 된 것'일 뿐입니다.

BC 8세기 바벨론 시파 지방(현대의 그리니치 천문대 같은 곳)에서 쓰여졌던 췌기문자 토판들(오늘날의 신문과 유사한 고대문서)을 보면 목성과 토성의 해후라는 희귀한 현상이 다음해에 일어나리라는 예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점성술사들이 여행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른 그들은 유대 땅에서 나올 세계의 통치자를 찾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곧 그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낸 헤롯은 그 고을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학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숫자는 십여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그 아이는 분명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세상을 지배할 운명의 소유자라면 그런 위협을 내버려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세속사에 기록되지 않았단든지, 헤롯이 정말 그런 일을 했겠느냐는 식의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헤롯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그의 통치가 재판조차 없는 처형으로 얼룩졌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조차 그 목록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아들 두 명을 목매달았고 바리새인들과 궁정 고관들의 학살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헤롯은 자기가 죽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의 고위층을 모두 처형해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베들레헴 유아 학살 정도는 가벼운 일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탄생, 이상한 별, 왕위에 위협을 느낀 헤롯이 저지른 유아 학살,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신기한 일화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내 아이가 혹시 이스라엘의 희망을 충족해 줄 그 사람인지 의아해 했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태초에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우선 "어디에서 시작되었나?"라는 질문을 또 한 차원 더 깊이 검토해 봅시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라 만물의 시작, 즉 태초에서부터 엮어 나갑니다. 그의 주장은 우선 귀를 번쩍 뜨이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1 절, 3-4 절)

이는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 바로 그 분입니다.

요한의 서술은 계속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절)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공유하고

세상의 창조에 동참한 분,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

바로 그 분이 우리가 보는 나사렛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전 세대들을 가리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는 그 외아들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이 내세운

엄청난 주장의 진위 여부는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삶과 교훈,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검토한 후에 따져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장 . 그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께서 한 말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 1 장 14-15 절 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14-15).*

이제 서른 살 된 목수가 역사의 현장에 놀랍게 등장한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예수님과 사촌간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는
행색이나 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옛 예언자들을 그대로 빼어 닮은 사람이었는데,
건성으로 믿는 장난 같은 종교를 버리고 태도와 행동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실 나무인 이스라엘의 등치에 도끼날을 대실 것이며,
죽은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것이 그가 전한 경고의
메세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종교적 오만과 사회의 부정,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을 공격했으며, 자신이 역사의 분기점에서 있다는
역사의식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증거로서
요단강의 탁한 물줄기에 나아와 세례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일찍이 유대인에게 이런 일을 요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도약은
대단히 극단적인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착한 일을 하는 것, 성전이나 회당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곧 자신의 삶에 내재해 있는 모든 죄악을 세례를 통해 깨끗이 씻어버리길
기대했습니다. 세례라는 상징적 행동은 일체의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 앞에 맡기며 메시아가 오실날을 기다리겠다는
소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은
결국 하나의 준비 단계에 불과함을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던진 요한의 메세지는 마른 나무에 불씨를 던져놓은 것 같은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1 세기 이상 동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갈릴리의 지배자인 헤롯 안티파스가 저지른
비행을 정면으로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안티파스는 요한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목을 자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무대의 중앙으로 등장해 요한의 메세지의
뒤를 잇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세지 역시 회개와 진정한 변화의 촉구라는
점에서 요한의 것과 동일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는
새로운 요소가 눈을 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상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제각기 이해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해 주는 기존
질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저마다 해석은
달랐을지언정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원수 로마를 물리치고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실 그날이 곧 하나님의 날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도래와 함께 이미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라는

구절들을 조사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들 방식대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도 반역을 멈추지 않는 인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갖는 두번째 의미가 보다 분명해 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지배에 복속시키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긴급함과 회개의 필요성을 촉구한 요한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선포된 메시지의 구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든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로마의 패배가 임박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기막힌 놀라움을 던져주고 맙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그가 낭독한 이사야의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절)*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의 흥분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곧 자신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자라는 뜻이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군사력에 대한 아무런 암시를 준 일이 없으며,

구약이 제시한 소망이 갖는 영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낭독을 어디서 끝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원문이 「주의 은혜의 해」에 이어 「여호와와 보복의 날」이 선포될 것을 말하고 있는 데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이 보복을 위해 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곧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주의 날」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일회적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통념을 일시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주의 날」 혹은 「하나님의 나라」(이 두 가지는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으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일 중 하나는 바로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 그 곳에서 와서 해방을 성취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가 다시 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시작하게 될 하나님 나라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의 교훈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부분일 「산상수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곧 하나님이 뜻하신 바 궁극적 행복이 실현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인생철학과 비교해 보면 산상수훈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가 금세 드러납니다. J.B. 필립스(J.B. Philips)의 생생한 표현을 보십시오.

떨어붙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전진할 것임이요.

냉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상처를 입지 않을 것임이요.

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에는 요구사항을 이룰 것임이요.
무관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죄로 고민하지 않을 것임이요.
노예를 부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을 이루어 낼 것임이요.
요령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를 부릴 줄 알기 때문이요.
말썽꾼은 복이 있나니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

이 '가르침' 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의 나라의 생활 철학을 비교해 보십시오.
필립스 번역은 여기서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줍니다.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이요.
슬픔의 뜻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용기와 위로를 얻을 것임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은 세계가 그들의 것임이요.
선을 바라는 마음에 목 마르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만족을 얻을 것임이요.
친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친절을 입을 것임이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창조자의 뜻을 따르는 인생 철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그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때 얻는 유익과 치루어야 할 대가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일반 종교가 제시해 온 삶의 모습에 견주어 보아도 이 생활 철학에는 확실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고 어둠 속에서 두리번거리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소원이 곧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증오는 살인 만큼이나 역겨운 것이고, 욕욕은 곧 간음과 상통합니다. 이혼은 그 나라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한 몸으로 있도록 정하신 이상, 그 외의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는 독특한 생활 방식이 요구됩니다. 그의 언어는 곧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미사여구로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삶의 기본적 자세이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옮겨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들, 곧 너그럽고 겸손한 삶, 기도하는 삶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돈놀이 대신 나눠주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정한 투자는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평안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과 들풀, 새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면 우리 또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염려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부를 쌓고 화려한 옷을 사 모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곧 세속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마 6:33 절)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나라에 그저 떠밀려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당신의 삶을 쌓아올려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천국의 삶을 간단히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매료되었고, 그의 주위에 몰려 들었습니다. 그가 가르침은

진리만이 갖는 호소력을 지녔으며, 그의 인격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껏 것처럼 살았던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또 다른 일면이 있으며,

예수님은 그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남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에 임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평화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뿐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날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최후 운명이

결정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그날이 곧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그의 제자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목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시작한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뜻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면서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나라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최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두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란 가르침이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일일이 추궁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그런 분, 엄하고 때론 잔혹하기까지 한 분입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혹은 너무나 거룩해서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예수님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견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중요한 존재이지만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거룩해서 성전에는 아침 저녁 올려지는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심판자요, 그의 기준은 곧 완벽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견해에 정면 도전을 선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라는 개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름 아흔 아홉 개를 뒤져보십시오. 아버지란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 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독특한 가르침이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아바」 라는 아람어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어린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친근히 부를 때 쓰는 말로 '아빠'라는 뜻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자신있게 부를 수 있다니! 그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는 부자지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바」 라고 부를 수 있다는 바로 그 진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바」 라는 이 한 단어로 감싸여 있습니다. 당신과 나 같은 실패자들, 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한 복판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자비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명예가 될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가족의 재산을 맡기고 우리를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라고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하게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종교적 의무를 제시하거나 새 종교를 창시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과, 그의 소원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집으로 맞아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랑의 우월성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번째 가르침, 곧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세 가지 가르침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각종 제의(祭儀)였고, 둘째는 수많은 금지 조항이 딸린 안식일 제도였으며, 세째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애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직자들은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율법, 안식일, 이 세 가지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요 축일에는 예루살렘에 가고, 평상시에는 회당에서 종교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며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엄격히 수행하는 것이 선민의 의무였습니다.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이것이 유대교의 요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에 도전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장사치들을 몰아낸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그들 앞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거둬서 병자들을 치료해 준 것은 예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말이었고, 결국 이로 인해 종교계의 세력가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종교질서 그 자체에 용감하게 홀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르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근사한 종교 의식이 아니고, 그 분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원하지 않고 자녀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삶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사랑을 지칭해 썼던 「아가페」(agape)란 단어가 사실상 예수님의 의해 쓰이기 시작했다는 말도 과장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단어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해서 외아들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은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전혀 무가치한 상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가 실천한 일인 동시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요구한 사랑입니다.

결단의 촉구

예수님의 네번째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렀지만, 흥미롭게도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에게로 향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에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 10 장을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혹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나라에 소속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와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도록 요구받는데, 그 결정은 대단히 긴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며, 자신의 제자들을 팔레스타인 사방에 보내어 그 소식을 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서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완성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악을 버리고 임박한 구원에 필요한 준비를 하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 구원이 이미 도래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믿고 그에게 자신을 맡겨야만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새 나라는 반역했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에게 다시금 돌아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D 20 년 후반 팔레스타인 곳곳에 전파된 소식의 내용이며, 이 소식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대에만도 이미 15 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의 결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목사보다도 그 자신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그를 떠나 방황할 것이냐에 대해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의 가르침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그 밖의 다른 모래더미에 집을 짓든지 선택은 당신의 자유지만,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 모래가 집을 지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할 수도 있지만, 양떼와 무관한 염소 한 마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오라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일지나 바깥 어두움에 머물러 있느냐는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단은 긴급을 요하는 일이며,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고 종교지도자들이 회의적이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이 너무도 많았으니까요. 시골 목수인 예수님과 한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면하고도 결단을 촉구하는 그의 음성으로부터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 달가워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갖는 실질적 요소이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측면임을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이 성가신 사람은 하기 싫은 결단을 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떠밀고 있습니다. 완강하고도 사랑이 담긴 그의 음성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생활방식, 왕이신 그의 다스림이 네 앞에 주어졌다. 바로 내가 그것을 네게 가져다 주었다. 너는 이 길, 이 최상의 길을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네가 지음 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이대로 안주하겠느냐? 결정하거라."

5 장.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 4:20 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미친 충격적인 영향력을 돌아보며 한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아니라 말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그저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직접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차원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를 곤경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도움을 그에게서 받아 누리기 위해 수 없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위대한 의사

'공생애'(예수님이 대중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2-3 년 간) 초기에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의사에 비교하곤 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평판이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눅 5:31 절)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대단히 정확한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인격, 사랑과 정직, 너그러움과 유머가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는 모두 해쓷하고 병색이 완연합니다. 태양에 그을린 구릿빛 육체를 지닌 운동선수가 병원을 방문해, 창백한 얼굴에 여기저기 붕대를 감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병자 곁에 선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자들끼리만 비교했을 때에는 자신의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의사에게 “훨씬 나아졌네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운동선수와 자신을 비교해 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기운 없는 모습인지, 완전한 건강이 아직도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병원(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곳)에 예수가 찾아 왔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남들에 비하면 난 참 건강한 편이라고, 내 다리가 부러진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자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찬찬히 살펴보고는 "너에겐 의사가 필요하구나,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병 고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병든 세상에 온 것입니다.

병을 다루심

복음서는 엄청난 숫자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고침을 받았다고 증언해 줍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은 더 중요한 일에 딸린 부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의 본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맹인과 절름발이와 귀머거리를 고쳤습니다. 그는 손발이 오그라진 사람들을 고쳐 주었고 심지어는 문둥병 환자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고쳐 주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린 적도 두세 번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동정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동정심 이상의 것입니다. 편견을 버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뿌리 내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귀의 세력을 다루심

예수님이 고친 것은 육체적 질병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내내 창궐했던 마귀들의 활동을 실감나게 그려 보입니다. 어찌면 이 땅의 원리가 그렇듯이 예수님의 밝은 빛이 사악한 어두움을 더 드러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고, 그 증거도 확실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전쟁, 질병의

배후에 조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악령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태동과 노골적인 사탄 숭배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합리주의는 악령의 존재를 코웃음으로 넘겨버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주의 사고는 극히 작은 소수집단의 소유물이었을 뿐,

이 땅의 대다수는 악령의 존재를 인생사의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벌인

그 유명한 투쟁,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그치지 않았던 마귀와의

싸움은 사탄이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입증해 줍니다. 사탄은 인간 존재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을 사로잡아 '귀신 들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단순한 심리적 병리 현상에 대한 원시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비웃는 태도가 유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무지한 생각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는 심리적 장애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논하기보다는 제가 쓴 '마이클 그린'의

『나는 사탄의 멸망을 믿는다』라는 책을 보면 이것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신 들리는 현상은 「이교 의식과의 접촉 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심리적 장애가 대체로 항존성을 보여주는데 반해 귀신 들리는

현상은 「돌발적」입니다. 세번째로 귀신 들린 상태는 심리적 장애와 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쫓아낼 때 즉각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이 악령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세력의 추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강렬한 표징」이 됩니다. 1900 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된 오순절운동이 이 구원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파가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단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그리스도인의 3 분의

1 정도가 온순절운동의 영향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적 은사’들이 일깨워졌다고 증언합니다. 이 은사들 가운데는 바로 병고침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현상을 사소한 것으로 격하시키는 태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예수는 마귀를 쫓는 행위가 인류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죄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져다 준 온전한 구원은 결코 몸의 질병이나 귀신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제일 중요한 치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라는 것이 있고, 그가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 역시 엄연히 실재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암세포처럼 치명적인 것이어서, 얼마간은 자각 증세 없이 잠복해 있지만 마침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자라나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고치고 싶어했던 것이 바로 이 암세포, 즉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였습니다. 그의 전 생애는 이 질병의 정체를 밝혀서 바로잡는 일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치료제는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한방울 한방울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가 모든 질병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이 병에 강조점을 두었고, 그 병을 치료하는데 열정을 바쳤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은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의 친구들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흙과 이엉으로
 얇은 지붕을 덮는데, 이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는 자리에 누워
 있는 환자를 줄로 달아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쓸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였을까요? 당연히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이른바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평지풍파를 일으켰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단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지 아닌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때
 그 사람이 별떡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기적만으로도 놀랍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 용서하는 것을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질병의 근원에 접근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밖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이 친히 함께
 머물기를 청하셨던 경우인데, 그는 결국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며
 자신이 부당 이익을 갈취했던 사람들에게 네 배의 보상을 하고,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놓겠다고 서약함으로써 자신의 변화를 입증했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였지만, 이제 눈을 뜬
 그는 굶어모은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구원(또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치료)이 이 집에 임했다."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또 다른 예는 갈릴리 바다 북서부의 조그만 마을 막달라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복음서는 그녀가 최소한 일곱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았다고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한 때 윤락녀이기도 했던 그녀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그녀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가득 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결과입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차원에서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즉 그는 몸을 치료하고, 어두운 세력의 악한 영향력을 치료하며, 죄를 치료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문은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입니다. 복음서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고 말입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기적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20 세기에 사는 우리가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와 기적은 분리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의 학자들은 기적과 상관 없는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보통 인간과는 다른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신 방식을 보면, 그저 훌륭한 인간이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일어난 그의 잉태와 출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기적의 치유, 마귀를 내쫓았던 일, 자연에 일으킨 기적(5 천명을 먹인 일이나 물 위를 걸었던 사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등을 살려낸 기적 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에 다루게 될 그의 부활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활은 단지 「생의 기한」을 조금 더 늘린 것이 아니라, 죽음이 더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된 「삶의 질적인 변화」를 뜻했습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 요즘의 유행입니다. 모두들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연법칙 자체는 기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연법칙이란 어디까지나 우리가 관찰한 일련의 규칙적 현상에 부여한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외적 현상이 발견되면 과학자는 자신의 '법칙'이 그 예외들을 포용할 수 있게끔 수정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외적인 경우였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그의 추종자와 적대 세력 양측에서 제시하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제자들은 그의 기적에 관해 명확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 자체를 부인할 길이 없자 그 일을 악마의 짓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주후 1 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인 '콰드라투스'(Quadratus)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Hadrianus)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황제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권면하기 위해 AD124 년에 씌어진 이 편지의 일부를 봅시다.

우리 구주께서 하신 일들은 언제나 우리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된 사람들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되거나 살아난 그 순간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우리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뿐 아니라 떠나신 후에도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콰드라투스'의 글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기적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해 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남긴 흔적은 로마와 유대교 자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AD 150 년 경 「변증」 (Apology)을 저술한 '유스티누스'(Justinus)는 "그가 이들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행동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썼는가 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유대인들도 기적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그것을 사탄의 짓으로 돌려 비난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마귀를 쫓는 주문으로 사용하려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풍습이 후대에까지 계속되면서 랍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을 금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주어지면 그 결론을 따르겠다는 개방적 자세로 관찰해 볼 때, 결론은 명쾌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또 한 사람의 설교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의 기적적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한갓 속임수에 불과했다면 감동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기적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의사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가난하고 부서진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그분의 사랑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냈고, 일에 지쳤을 때에도 사람들을 불만스러운 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보고 나눠주었으며 치유해 주었습니다.

둘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예수님 자신의 주장」을 듣게 됩니다. 자연을 이용한 기적은 그 좋은 실례가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주린 이들을 먹이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풍량이 세찬 갈릴리 바다 수면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적은 그저 자랑삼아 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포에 질린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시편(89:9 절 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거 누구도 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깨닫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화살표와도 같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가슴속에 제공하시기 원하시는 그림들입니다.」 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눈 먼 거지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는 그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몸이 마비된 자를 고쳐준 것은 그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누릴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먹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굶주림을 채워주는 「하늘의 떡」이 되길 원합니다. 무덤에서 나사로를 끄집어냄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물」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가 누릴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이 일으키고자 하는 영적 혁명의 모습을 구체적인 일상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목표로 한 것은 사람들에게 「도망갈 길 없는 도전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면 그런 이적을 행한 사람에 대해 무언가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돌팔이인가, 진짜인가?" "마귀의 장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일까?" 기적의 존재가 이 질문에 결정적인 대답을 당장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자기 신분에 관한 예수님 자신의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했는가? 그저 말뿐이었는가 아니면 진정한 능력으로였는가?" 예수님의 이적을 그저 관심 밖으로 미루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야말로 그가 행한 일들의 핵심에 위치하며,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행적 중 기적적 능력과 상관 없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함께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감추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적은 두 가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우선 기적은 그가 선포한 제자로의 부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삶을 관찰했으며 그의 능력의 증인이 된 이들은 그에게 나아와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을 포함한 상당수는 이러한 권위 있는 행동을 그저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미 불길한 소식이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무엇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주관하는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그들의 임명을 받은 일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하나가 곧 이들에 대한 도전이요 꾸짖음이 되었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그들이 이미 세워놓은 편견, 즉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그의 가르침과 인격은 모두가 자기들이 그토록 공경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왔다는 편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릴 수 밖에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는 늘 이런 결과가 따라 다닙니다. 기적은 신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입니다.

기적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풀이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버리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개자였습니까 아니면 사기꾼이었습니까? 그도 아니면
악마의 도구에 불과했습니까?

6 장. 그가 주장한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족보나 업적을 자랑하며 돌아다니는 떠벌이꾼에게 의심스런 눈총
을 주게 마련입니다. 만일 예수도 그런 인물이었다면
우선 이 글을 쓰는 저부터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
자신이라면,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 사항을 짚어봅시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이 「시공과 개인차를 초월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왜곡하고 있는 탐욕이나 증오에
때묻지 않은 그런 삶,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인류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것」
이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의 실체이자 지고한 기쁨 자체인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배경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예수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 했던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로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활에 배어있는 「겸손과 단순성」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에게는 집조차 없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지도자들과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자 그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자신에게는 내놓을 동전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목수의 직업을 버린후 그는 떠돌이 교사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바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일정한 수입도, 공식 교육 과정도, 든든한 후원자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자신은 겸손하고 온유하므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는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매력이 어디서 오는가에 관해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세 가지 증거를 차례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그의 행동

우선 그의 행동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5 장에서 이미 그가 한 일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기적에는 어떤 주장들이 숨어있습니다.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베풀기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였습니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떨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사 35:4-6 절)

이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닌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다시 들으며, 다리를 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은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는 눈먼 이에게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영을 열어주며, 들리지 않는 귀를 열어 자신의 부름을 듣게 합니다. 절뚝이는 다리에 힘을 불어넣는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백한 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주장이 기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고유의 특권과 관계되는 행위로 아래 두 가지를 더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군중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마비된 환자가 누운 침대를 줄에 달아내렸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환자를 사랑으로 대했던 예수님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고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예수님이 의도한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병만 치료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인자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그분의 은혜로운 뜻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또다른 일화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드린 예배를 받아들인 것과 관계 있습니다. 철야 작업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쪽에 다시 그물을 내리되 배 오른쪽으로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부도 아닌 이 사나이의 충고가 달가웠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즉각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예수님은 그의 예배 행위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비슷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예배 드리려 하자 질겁을 하며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베드로의 경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사건은 부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도마는 의심하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난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도마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 말한대로 해 보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즉시 엎드려 경배하면서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 예배를 받아들이면서 "너는 보고 나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겠지만, 철두철미 유일신주의로 일관하는 유대교로서는 어떤 인간이나 형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경배를 받아들인 사건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그는 예배가 자신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요 13:3 절)

그의 약속

이처럼 예수님의 행동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들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한 약속들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어서, 모두 진실이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헛소리든지 둘 중 하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은 없어져도 자신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을 기록한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광경을 보면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의 마지막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절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인 자신을 세상에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도 약속했습니다.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미 이 약속을 시험해 보았고 그 진실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정말 새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그 무엇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며, 죽음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특정한 몇 사람만 받았던 성령을 자신의 죽음 후에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순절 날 그 약속은 실현되었으며, 그 이후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실현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 삶으로써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며,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라고 약속했습니다.(요 14:6 절) 이미 무수한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에게 가는 자는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 역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 추측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인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정보는 모두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가 끝날 때 세상을 심판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각자의 최후 운명을 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우리에게 가장 대담한 말을 들을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들은 너무도 독특합니다. 전세계의 모든 책들을 뒤져도 이와 비슷한 것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약속들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의 주장

이제 세번째로 예수님이 한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넘어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영광스런 날들을 꿈꾸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곧 유대의 해방이요,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찬란한 축복의 개시로 이해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지칭한 것을 살펴보면 복음서에만 50 여 회, 나머지에서 280 여 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서 '기쁨부음 받은 자'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호칭을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너무도 정치적이었고, 오해의 소지 역시 많았습니다. 초대 교회가 예수님을 이 단어로 불렀으며 예수님이 메시아를 사칭한 사기꾼으로 처형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불렀는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는 그런 호칭을 광고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주장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가장 즐겨 사용한 호칭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 80 여 회나 등장하는데, 항상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자」란 호칭은 대개 세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자 죄를 용서하는 이로서 「자신의 사역과 신분」을 호칭할 때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사야서에 묘사된 바,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역사의 종말을 가져올 그의 재림과 관련 있는 호칭」입니다. 아람어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란 호칭은 그저 '나' 혹은 '어떤 이'등의 일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호칭을 의미심장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간단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더 이상 취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는 "모두들 이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들은 이상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신성 모독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또 다른 호칭으로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포도원을 임대해 준 주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질 나쁜 소작인들은 매년 수확의 일부를 받으러 오는 심부름꾼을 몰매질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내아들은 어떻게 알겠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소작인들은 놀랍게도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임했습니다.(눅 20:9-18 절) 제사장들은 그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는 이스라엘이 들어본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의 선택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면을 쓴 신이 아니라 참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저 인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이를 표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이상 더 좋은 비유가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을 공유하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가졌고 전능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이해는 아주 다양한 비유로 나타나는데, 그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항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경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로 불립니다. 시편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구하시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놓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 장의 유명한 기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최고의 외경심을 표현하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권위를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구세주」요 「심판자」라는 구약성경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으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구약의 하나님 이해와 명백한 일치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의 '아니 후'와 그리스어의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둘 다 "나는...이다"(I am)
라는 뜻인데 영어에서 'I am'이라는 말만으로는 아무런 뜻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두 단어로 된 원어 표현의 힘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생명의 근원이요 영생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이름을 표현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감하고 그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아니 후'라는
두 단어를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우러르는
이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장막절과 유월절이라는 양대 절기 때
쓰이는 전례의 틀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 때 읽히는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I am)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니」 (I am he)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사 43:10-13 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주장한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거룩한 「나」 (I am)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명백하고 어떤 때는 암시적인 이 선언을
 놓고 다시금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보십시오.(요 4 장)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해 합니다. 예수님은 얼핏 보기에 그녀의 생각을 바로잡으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물론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도 자신의 입으로 메시아란 호칭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메시아는 아닐지
 모르지만 바로 거룩한 「아니 후」, 「에고 에이미」인 것입니다!

이 점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 경우로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폭풍우를
 들 수 있습니다.(마 14 장) 백전노장 어부들인 제자들마저 공포에 질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은 더욱 공포스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I am)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신성의 계시와 거룩한 이름의 계시가 여기에서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놓고 벌인 유대인과의 논쟁은 또 어떠합니까?(요 8 장)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시대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적수들은 "네가 오십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라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천연덕스러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I am)"

적들은 돌맹이를 집어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들은 명확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한창일 때 대제사장은 메시아를 사칭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기소했습니다.(눅 22 장) 예수님의 대답은 두 단어 "내가 그다"(I am) 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메시아란 의미였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한번도 자신을 메시아로 부른 적이 없던 것을 생각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즉 자신은 그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고 신성모독을 꾸짖은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보낸 마지막 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하면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요 13:19 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 표현에 신비로우면서도 애매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와 같은 말은 너무도 희한한 주장이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하나님 이름을 상기시키기위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 예수님과 동시대의 랍비들은 대단히 정성 들인 연구를 남긴 바 있습니다. AD 160 년 경 쓰여진 랍비 엘리에젤(Eliezer)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 여인의 아들이 장차 나올 것을 미리 보셨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것이고 온 세상을 혼돈으로 이끌 것이다. 만일 그가 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며, 자신은 그들을 떠났다가 세상

끝날까지 오겠다고 말할 것이다.'

가이사라의 랍비 아바후(Abbahu of Caesarea)의 글은 100 년 후에 쓰인 것이지만 아주 초기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그는 사기꾼이다.

「나는 인자다」 라고 말하며 그 종말은 후회스러운 것이 되리라.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말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결과밖에 더 남겠는가?'

이 글들은 명백히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의식하고 쓰여진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뿐 아니라 적수들의 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말한 어떤 주장보다도 더 대담하고 명확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인자」나 「하나님의 아들」 처럼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명백하면서도 처치곤란하리만치 대담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 와서 자신의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 이다'(I am) 라고 말할 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가르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내가 행동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내가 약속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내가 고난받고 죽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도전적인 주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웁습니다."라고 말하고 경배하거나, "틀렸다"고 분개하면서 그를 배척하는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의 행동, 그의 약속, 그의 자기주장이라는 이 증거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결정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내리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마음을 정하라"

옥스포드 대학의 탁월한 학자 C.S. Lewis 는 자신이 이 점을 놓고 결정해야만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의 저술을 통해 수백만의 영혼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관한 한 어중간한 입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독특한 존재입니다. 루이스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가 말한 것들은 다른 스승들의 말과 판이하게 다르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우주에 관한 진리다. 이것이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한다. 그는 "나를 통하지 않고 절대적 확신에 이를 수는 없다. 네 자신의 삶을 고집하면 파멸을 피할 수 없다. 네 자신을 버려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는 "내가 나를 부끄러워 한다면, 내 부름을 받고도 다른 길로 간다면, 내가 하나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그 때 그 다른 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너와 하나님,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을 던져 버려라. 그것이 네 눈이면 뽑아버려라. 그것이 네 손이면 잘라내라, 네 자신을 제일로 알면 결국 끄트머리가 될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가볍게 해주마. 네 모든 죄악은 씻어졌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삶의 시작이요, 생명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는 네 음식이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온 우주를 정복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7 장. 그는 왜 죽었습니까?

AD 30 년, 역사상 가장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공경한다는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한 젊은이를 로마 지배세력에게 넘겨주어 고문 끝에 처형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정의의 대변자로 자처하던 로마 지배세력은 현지 총독이 세 번씩이나 이 청년의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그는 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의 죽음은 불가피했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에게 내재된 추악하고 비틀린 본성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친절하고 이타적인 사람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마치 그들에 가려져 있는 기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완벽한 인간, 도덕의 화신같은 존재가 당신 앞을 걸어다니고 있다면 당신 역시 비슷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에게로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타오르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증오심과 그를 없애야만 한다는 결심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군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난리를 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예수보다 감옥에 갇혀있던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기 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바는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의 심정 역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의 선량함은 불가사의해 보였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들의 평화에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일찍이 예수는 인간성의 어두운 그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속에 우리를 향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죽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살았던 삶의 질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예수가 유대나라의 통치세력과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을 일으켰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그가 얻은 광범위한 지지는 유다가 로마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평화를 흔들어 놓을 위험이 있었고, 로마의 가혹한 탄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종교 전체에 맞서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즉, 유대교의 핵심교리인 제사제도, 성전, 율법뿐 아니라 그에 근거한 서기관들의 해석, 회당의 교리들, 안식일과 여러 제한조치들, 그리고 유대 남성의 표지인 할례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들에 심각한 의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인격 자체가 시간에 매이지 않은 ‘성전’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일으켜 영적 예배의 중심으로 삼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후대에 가서야 그 의미가 알려지게 되는 이 신비스런 가르침은 실상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었고, 그를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해석에 따라 그 말은 신성모독 혹은 마법의 혐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 경우든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예수의 율법관은 어떠합니까? 한편으로 그는 율법에 너무나 친숙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율법의 문자적 이해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성직자들의 부정직과 위선을 향한 그의 공격은 실로 신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언뜻 보기에는 안식일 조례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들을 걷다가 손으로 낱알을 훑어 먹었던 그의 행위는 사실 평일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유대교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이 행위가 수확과 탈곡, 그리고 식사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당대 성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울타리’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안식일은 생명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데에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가 사귀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부류에 속했다는 점입니다. 그를 둘러쌌던 무리들은 흔히 사회의 찌꺼기로 불리던 사람들, 엄숙한 신앙인들은 교제를 생각할 수조차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은 훌륭한 인물이나 그렇지 못한 인물을 가리지 않는 예수의 관심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유대교 성직자들은 이 일을 대단한 추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더구나 예수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사귀음을 가져 스스로를 더럽혔다는 혐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리아인, 페니키아인, 사마리아인 등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역시 사랑하셨고, 예수는 바로 그 사실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성직자들은 그러한 관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 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예수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결탁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과거에는 결코 연합될 수 없던 이 집단들이 새삼스레 손잡았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예수에 관한 그들의 결심은 더욱 굳어만 갔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원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지 피할 수 없는 것

이었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자신의 결심에 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는 벗들에게 누군가가 예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 발길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노정에서 예수는 세 번이나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어 예수는 자신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와도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던 날 밤, 그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싸움을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뽑아든 자신의 제자에게 칼을 버리라고 명했으며, 오히려 그 칼에 상처를 입은 자신의 적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공판정에 선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일체 하지 않고 침묵을 택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의 생사여탈권을 가졌다고 뽑내자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조용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육체가 내지르는 고통스런 호소를 억누르면서 참혹한 처형 과정을 겪어나갔습니다. 예수의 죽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발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의 죽음은 다른 끔찍한 죽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죽음이 갖는 신비함의 일부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이러한 죽음이 이미 오래 전에 예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는 구약성경을 연구하면서, 펼쳐는 곳마다 희생적 죽음의 핏

즐기가 흐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되던 날, 이스라엘 각 집을 위해 바쳐진 어린 양의 희생 속에 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희생제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낳았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짐승을 죽여 제물로 바치던 제사제도 속에 피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대속죄일에도 피가 흘렸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바로 선자들이 예언했던 바 '새 언약'으로서, 여기에는 속죄의 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 새 언약 역시 곧 피흘림으로 보충되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찍이 선지자들 치고 반대에 부딪쳐서 피흘리는 운명을 벗어난 이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서의 인자 역시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최후 운명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놀라운 인물이 억압과 불의한 대접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겨서' 온 나라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리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종은 일생 동안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함께 죽어 부자의 묘실에 묻히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운명과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고난이 가져올 값진 열매를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의를 대신 짊어질 예수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 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글은 아래와 같이 끝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재산)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야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이사야53:12)

예수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말들이 자신에게 적용됨을
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졌던 것입
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3 일만에 살아나리라(마가복음9:31)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달갑
지 않은 주제요, 물어보기조차 두려운 그 무엇이었습니다. 예수는 자
신의 죽음이 완전히 자발적이면서도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예언
의 성취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성경에 기
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록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가 죽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말은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
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세상 어떤 죽음과도 다른데, 그것은 바로 십자
가에서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의 정체 때문입니다.

이미 이 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는 그저 선량한 사람이나 훌륭한
스승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간으로 나타낸 존

재였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자’ 호칭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에게 두 본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지만, 그 밖의 다른 어떤 설명도 예수라는 존재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은 이 불가사의한 사람이 달려죽은 십자가에 눈부시게 밝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죽음은 지고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으며, 예수 자신의 말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선한 목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잊지 못할 말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사실 그는 이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구해내려 했던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그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신비를 그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6-8)*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우리들 인간에게 베푸

신이 관용은 또 얼마나 큼니까! 그는 사랑했기에 우리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는 사랑했기에 그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외롭고 병들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병을 고쳐주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는 사랑했기에 전적으로 부당한 반대를 참아 냈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불의한 재판, 제자들의 배신 자신의 온 삶을 바친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절망감까지도 달게 견뎌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사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죽음의 번민을 짊어진 피조물들과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은 모르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참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우리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을 겪었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고통스런 죽음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두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무서운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면서 고의적으로 잊으려고 애쓰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다른 종교 사이를 적당히 드나들면서 “나는 내식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철퇴를 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이 그분의 앞에 와서 “난 내 식으로 살았다네...”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광경은 가당치도 않은 상식입니다. 인류는 치명적인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국제간의 긴장, 사회적, 경제적 문제, 환경 오염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었고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상태 그대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독립심을 위협하고 우리의 쾌락을 저지하며 우리의 행동에 사사건건 판단을 내리려 드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택한 이러한 소외상태를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이 문제를 그저 덮어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면서 우리는 멀쩡한 육체를 가졌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서 이제는 그 거리감조차도 느끼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죽음의 느낌, 소외감, 깊은 고독감, 의미의 상실뿐입니다. 우리는 소유물을 우리의 신으로 삼았지만, 그 소유물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황무지를 헤매다가 거기서 생을 마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고, 도저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삶의 포로로 만든 이 세력 앞에 우리는 무력한 사냥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놓아줄 그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는 단지 훌륭한 본보기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벌어진 틈을 매우고, 증오심을 죽이며, 소외 대신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그 위에서 죽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죄를 속죄 염소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염소를 타는 듯이 뜨거운 광야로 풀어 보냈습니다. 그는 그 속죄 염소의 예표를 성취했습니다. 그가 바로 속죄일의 궁극적인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고 매도해 왔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감당했으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승리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빛은 청산되었습니다. 그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악행, 거짓된 믿음, 사교, 우리 세계를 손상시키는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은 결국 어둠의 왕인 사탄

의 하수인들이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심으로써 모든 악의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패배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셨습니다”(골로새서 2:15 참조). 복음서들은 예수의 진정한 적은 당시 유대인들이 으레 생각했듯이 로마 지배세력이 아니라, 악의 화신인 사탄, 혹은 마귀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사탄이 세상 모든 악의 배후에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존재와 정면 승부를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발점에 있었던 사탄의 시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한 논쟁, 예수와 마주쳤던 무수한 환자와 귀신 들린 이들, 이 모두는 쉽 없는 영적 대전쟁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은 바로 십자가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고픈 유혹은 너무나 강렬한 것이었으며, 설사 십자가를 정말로 진다고 하더라도 악의 막강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운명을 대신 겪었고, 우리의 고통과 유한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짐과 상실감, 무력감에 시달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표현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장엄하다고 할 수 있는 다음 구절이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세번째로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 모두를 구해 주는 방책일 뿐 아니라 공정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름 아닌 첫인간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역사의 여명에서부터 우리 멋대로 하겠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반역과 적대행위,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강요함으로써 정해진 철길로만 달리는 기차 같은 인생을 만들 수도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 자신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한 점 희망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악한 행동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면,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별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면놀이를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실재하는 죄와 문제들을 없애는 듯 속인다면 하나님의 진실과 공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와 불의,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해결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놀랍도록 대담하고 빈틈 없이 공정하면서도 믿기 어려우리만치 너그러운 해결책이었습

니다. 그 분 자신이 우리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사악함을 정죄하는 동시에 그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으며,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죄라는 독을 직시하면서 죽음의 잔을 스스로 들이켰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은 죄를 별것 아니라는 듯 넘겨버리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믿기지 않는 사랑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혹자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대신 예수를 처벌한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을 무감동한 거래행위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들은 법률상의 개념을 빌어 마치 판사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가 하신 일은 전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의 거룩함과 사랑을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와서 그 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었으므로 우리 인간의 필요를 대신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속죄 행위에는 무한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장차 십자가에서 행하실 대속에 근거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2 천 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면서도 역사적, 시대적 상황상 그에 관한 지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환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까운 벗이었던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은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한일서 2:2)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한 용납의 선언입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패들과 내가 아직도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들과 때때로 빠져들게 되는 내 사악함의 깊이를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래야 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실제로 고통을 겪으며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전체 거래에 마무리를 짓는 도장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의 표시인 결혼반지이며, 우리를 하나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입양서류, 천국으로의 이민서류입니다.

어떤 비유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도장이며 보증서입니다. 존 번연(John Bunyan)의 위대한 고전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무거운 짐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벗겨져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을 벗은 그리스도인은 홀가분한 몸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정죄는 없습니다. 나를 몰아세우던 죄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 영원히 해결을 보았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실수했다고 해서 쫓겨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보증을 섰기 때문입니다. 이 보증서는 그의 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믿을 만한 보증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따금씩 누가 엄청난 관용을 베풀면 우리는 당혹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놀라움으로 두 눈을 빛내면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 이의 품
에 안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반응이 바로 그것
입니다. 한 찬송가 작사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해 냈습니다.

내 손에 드릴 것 없어
십자가만 붙들니다

십자가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은 이것
뿐입니다.

8 장. 죽었으면 끝 아닙니까?

이 책의 제목을 “예수는 누구였나?”가 아니라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붙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책의 원제목은 Who is this Jesus? 입니다 - 편집자 주)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의 경험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나는 연구실에 있는 푸른색 긴 의자 위에 어떤 사람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모셔들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경험이었는지! 그런 일이 단 한 번만 있다 해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말 그대로 수백만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 몇 명이 한 젊은이의 침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척추에 중상을 입고 몇 주일 간이나 침대에 누워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이 청년은 신약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나는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몇몇 성도들을 불러서 그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는 그가 회복되라라는 깊은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일어나 뜨락을 걸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같은 일을 두 번 연거푸 한 후 그를 쉬게 하고서 나는 그의 저녁식사를 가져다 주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는 모두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 중입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나는 어젯밤 예배 시간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파도타기 선수로서 세계선수권까지 정복한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는 파도타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그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예배와 성만찬 예식을 집행하는 모습에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와이 해변을 주름잡는 우락부락한 파도타기 선수들을 그가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와이를 떠나 미국 본토의 새 목회지로 향하기 전 드리는 그 마지막 예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이 운동선수 겸 사업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한 사람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얼굴, 그의 말, 그의 행동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예수'라는 분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파도타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그만 성경공부 그룹을 조직한 것은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삶을 변화시킨 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몇백 명 교우들을 이끄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회중들도 그와 똑같은 체험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하와이에 소재한 그 조그만 교회는 중남미와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교우들 중 상당수는 외국에 단기선교를 다녀왔으며, 이미 수백 명이 똑같은 체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내가 잘 아는 어느 여성은 한때 창녀의 신분으로 마법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실로 길고도 고통스런 투쟁을 거쳐 그녀는 그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독자들에게 그 여인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친구 되신 예수가 한갓 역사책 속의 죽은 인물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 그녀의 삶을 변화시

킨 존재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녀는 한때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행위로 신문기사에 오르내렸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체험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짜임새 있게 늘어놓은 논증을 통해 그럴 듯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한 예수와의 사귄입니다.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이 인물을 당신 스스로 직접 만나는 것, 그래서 당신의 삶을 환한 양지로 옮겨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이것 봐, 당신은 광신자로군.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친구 이야기 따위를 우리더러 믿으라는 건 아니겠지. 지금은 21 세기라구!”

맞습니다. 나는 광신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광신자는 아닙니다. 나의 광신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그 근거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 사람들이 논쟁을 통해 기독교로 회심하는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사흘간이나 갇혀있던 무덤을 박차고 나왔고 지금껏 살아있다는 이런 말을 정말로 진지하게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시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가 틀림 없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일에는 수천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는 여섯 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버티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금요일, 그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기록은 정말 사실일까요? 그때까지도 숨이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서늘한 그 무덤 안에서 다시 희생한 것은 아닐까요? 부활절 이야기란 것은 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시체가 매달려 있음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인들은 죽은 것이 확실한 시체는 끌어내려 놓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확인 절차는 큰 망치로 가엾은 희생자의 다리뼈를 부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매달린 사람은 흉부에 엄청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리로 체중을 버티고 온몸을 치켜드는 노력을 해야만 겨우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끊어질 듯 가쁜 숨을 이어가는 사람의 다리뼈를 분질러 놓으면 금방 질식해 죽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 온 로마 군인들은 그가 이미 숨을 거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리뼈에 손을 대는 대신 예수의 옆구리로 창을 찔러 넣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면 상처에서 새 팔간 피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요한으로 짐작되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상처에서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응고된 검붉은 피와 혈장의 분리를 일상 언어로 기록한 표현임이 분명한데, 혈장의 분리가 법의학상 가장 확실한 사망진단 기준 중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처형 담당자는 빌라도에게 그의 사망을 확인 보고했습니다. 만일 한치라도 실수가 있다면 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었고, 만일 빌라도가 실수를 했다면 그의 처지도 곤란하게 되어 있었습디다. 분명히 그는 죽었습니다. 시체는 죄수의 친구 두 사람에게 건네졌고 그들은 그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서늘한 무덤에서 예수가 회생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 죽었습니다.

빈 무덤

그 다음 증거는 첫 '부활절'에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거주 유대인들간에 대단한 소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어느 유대인도 정면으로 부활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한 10년을 통틀어 가장 난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 역시 그것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무덤은 분명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비어 있었겠습니까?

가능성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을 것입니다.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좀더 쉬워 보이는 설명을 검토해 봅시다. 예수의 시체를 옮겨 내길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의 적수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무덤에 집어넣으려고 밤낮 궁리를 한 끝에 드디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시체를 옮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시체를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서 예수의 시체를 옮겨놓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며 혁명에 가까운 소란을 일으켰을 때 단번에 망신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어디에서 시체를 만들어내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인들과는 달리 예수의 무덤이 순례지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여기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친구들이 혹시 그의 시체를 훔쳐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것 역시 얼핏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지역 일대를 휩쓸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고문과 처형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헌신적일 수 있었을까요? 실수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는 있어도 명백한 자기극을 위해 죽음을 자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 성장, 그들이 보여준 담대한 신앙이 모두 거짓말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무덤에는 파수꾼이 지켜 서 있었습니다. 무덤을 덮쳐 시체를 빼내려 시도했다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들에게 그럴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뺑소니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까지 한달음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예수를 무덤에서 빼내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에 관해서 한 가지 일화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나이가 어린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쫓아 베드로가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그가 무덤 안에 직접 들어가 보니,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의 수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의 몸을 감았던 그 헝겊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몸을 감았던 헝겊은 헝겊대로, 머리를 싸맸던 헝겊은

또 그것대로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수의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으며, 마치 나비가 고치를 남기고 날아가듯 예수의 몸만 없어졌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간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빈 무덤은 그 이후로 계속하여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인들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빈 무덤뿐만이 아닙니다. 빈 고치가 있다는 것만으로 나비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나비를 아는 것은 실제 눈으로 나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며 그들은 40 일 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은 것은 빈 무덤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율절을 함께 보냈던 다락방에서, 혹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때는 모여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은 예수와 동행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치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그 6 주간은 제자들의 삶에 결정적인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을 그토록 변화시킨 계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황하거나 겁내지 않았고, 완전한 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누비며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두려움 없이 전했으며,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공동체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름 아닌 교회의 탄생입니다. AD 30년까지 존재한 일이 없었던 그 무엇이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처형당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기세가 꺾여야 할 그 시점에서, 이 조직체는 갑자기 소생해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 외에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가 체포되던 날 그의 제자들은 지푸라기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멀리 갈릴리까지 도망쳐 버린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제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이 새로운 신앙운동은 뒤에서 밀어주는 자금력도, 드러난 지휘체제도, 아무런 사전경험도, 교육배경도 없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당시 세계를 뒤집어 엮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온 세계를 변혁시키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면서, 지상의 모든 나라에 예수와 그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표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살아났다면 그 표지들에는 풍성한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첫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사회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며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는 그리스도인 고유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상징이 예수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부활에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명백히 보이지 않습니까?

두번째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일(주의 날)입니다. 유대인들

이 아득한 옛날부터 지켜왔던 안식일(토요일)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창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날에 쉬셨다면 그의 백성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시험 삼아 이제부터 일요일 대신 월요일에 일을 쉬기로 결심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바탕에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바로 일요일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첫 부활절이 바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변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사건이야말로 그들의 일생을 통틀어 가장 놀랍고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의 탄생과 생존, 그리고 성장의 전과정이 바로 예수 부활의 중대한 증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전세계 어떤 종교보다도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 믿음은 소멸되기는커녕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어떤 외적 구조가 아닙니다. 무슨 규제 사항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자주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지, 또 수많은 부패와 타락, 실패와 음모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생기와 명예를 잃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딘가에 계셔서 교회에 생명력을 주지 않았다면 벌써 수세기 전에 교회라는 존재가 모두 사라져 버

리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들같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과연 1년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옥문이 교회를 억누르지 못하리라고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껏 그랬듯이 앞으로로도 살아계신 예수의 손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한,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하지만 부활 문제를 볼 때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신나는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만났던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조그만 고물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단축되었습니다. 그나마 매사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빛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예수의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업가인데,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결혼 생활과 음주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술을 끊은 것은 물론 결혼 생활과 행복을 되찾게 된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범들을 위해 봉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젊은 수감자들을 찾아가 도움을 제공하고 출소 후의 여러 일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인 사

업가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또 하나의 다른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며, 이 세상에 아류가 없는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제 하루 동안 만난 이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책에 기록된 논증을 통해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나아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한 가장 오래된 증언이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기록을 봅시다. 다음의 글은 AD50년대 초반 고린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니라(고린도 전서 15:3-8)

이 놀라운 증언에서 두 가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증언은 아주 초기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찍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우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바울 자신은 부활 사건 2-3년 후에 있었던 자신의 회심 직후에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사실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돌변시킨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와 만난 그는 그 이후로 줄곧 자신이 만난 이가 부활하신 예수임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 기록은 무척 초기에 속하는 직접적 체험의 증언임이 분명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상심한 제자들을 복음의 용사들로 탈바꿈시킨 그의 능력을 보십시오. 게바(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를 낙담에서 건져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만든 그의 능력, 오백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 교회를 만든 그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동생 야고보를 회의론자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변모시킨 예수, 의심 많은 비관주의자 도마를 담대한 전사로 바꾸어 놓은 예수, 초대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던 원수 사울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선교사요 스승으로 변모시킨 예수의 그 능력!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예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앞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장. 정말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에 동의할 만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의 가르침과 행동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과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낯선 갈릴리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예, 하나님을 믿죠.”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녔는걸요”라든가 “교회 다닙니다”라

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란
분을 아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대개는 의아한 표정을 짓든지 불쾌한
내색을 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란 이른바 극단적인 ‘구원파’사
람들이나 광신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참뜻이 무엇인가에 관해 심각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치러는 의식, 준수해야만 하는 규범들,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 정숙한 복장,
혹은 예배참석,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과 거리가 멉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가장
위대하고 매력적인 존재인 예수와 맺는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와 같은 시대에
갈릴리에 살았다면 그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틀림 없이 당신은 그에 관해 무슨 말이든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화제가 될 만한
인물입니다. 당신의 친구 중에는 예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친구를 통해
예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얻어 들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라는 존재의 향취를 맡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알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친구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장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전에 예수에 관해 알아보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만일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걸 놓치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시험하십시오

당신이 1 세기에 살았다라면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천국은 값진 진주 혹은 밭에 묻힌 보배와 같다는 그의 비유를 꼼꼼이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이 얼마나 참되며 얼마나 매력적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집을 강도에게 빼앗기고 몸까지 묶여있는 사람과 같은데, 마침내 더 크고 힘센 사람이 와서 강도를 내쫓고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동지애를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들의 마음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슬그머니 그들이 부러워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팔레스타인 거리를 오가던 때와 똑같이 긴 세월이 흐른 오늘날도, 예수에 관해 알아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알기 쉽게 번역된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마치 이전에는 한번도 읽어 보지 못한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 분께 말씀 드리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읽을 이 복음서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보여주십시오.

진리가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기로 약속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 결과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따르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라는 기초 자료를 열린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두번째 방법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 그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당신이 이미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납득되기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낯선 동네에 이사를 가서 그 동네 의사에 관해 알아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를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그에 관한 기록이나 자격증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에게 “그 의사 어땠던가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것처럼 복음서를 읽고 예수의 제자들을 살펴보십시오. 물론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들을 다듬으시는 예수의 손길은 아직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배에는 진리의 울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맥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주위에는 진정으로 이웃에 관심을 갖는 교회, 분명한 실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구성원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계산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당시에 살았더라면 그를 따르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직업보다 그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나중에서야 처음부터 자재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곤란합니다. 먼저 믿음에는 반대가 따릅니다. 예수는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수적으로 밀리는 전쟁입니다. 1 만 명의 병력으로 2 만 명의 적과 대치하는 전투에 참여할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분명코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은 당장 나가서 전재산을 팔아치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은 집과 고기잡이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은 제자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무엇인가의 소유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빌려 쓰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를 가장 첫 자리에 모셔야 했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인 몰래 재산을 감추어 놓지 않습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대단히 값비싼 결단이며, 신중한 고려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까? 지상에서 가장 기쁜 뉴스에 귀를 막고, 자신의 전 인생을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쌓아올렸다가 인생의 비바람과 파도 앞에 무너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만큼 천국과 지옥에 관해 심각하게 가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선택은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가족이나 직업, 당신의 야망보다 앞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일요일에 소일거리할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첫 자리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단지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만큼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할 때 그와의 사귄이 가져다 줄 환희, 기쁨 때만 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인생에서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존재하는 그런 환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인품이 갖는 힘, 그의 감화력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주기 원하는 죄의 용서,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의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모셔들이고 그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했을 때 당신이 누리게 될 삶의 뚜렷한 목적과 활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압박과 스트레스 앞에서 그가 주실 평안과 고요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형제 자매들과 누리게 될 깊은 사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견줄 수 있는 모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정말로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등을 돌릴 때에는 더 비싼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으로든 마음을 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 것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탈출구가 되지 못합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 또한 또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단에 따를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헌신하기 전에 한번 더 망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주장이 너무도 결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수없이 많은 떡장수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 그 자체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안내인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상담자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 자체입니다! 1 세기에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벅찬 주장이었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수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권세 있는 가르침, 비할 바 없는 인격, 부인할 수 없는 이적들이 모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의 가르침을 더욱 확고히 해줍니다. 예수와

같은 이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스승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 대신에 완벽한 것, 단순히 좋은 것 대신에 최고의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훌륭한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훈들, 기도와 제사제도에도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를 따르기로 했다면 이런 일들, 즉 그 나름대로 가치는 있지만 불완전한 예배행위 대신 예수께 우선권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런 결단은 그다지 인기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두루 거쳐왔다 해도 이제는 평생 지속되는 배타적인 헌신을 약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야말로 당신의 실패와 배반을 십자가 상에서 떠맡은 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예수만이 보이지 않는 그의 영을 당신의 존재 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 전체를 그의 손에 맡길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1 세기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에게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을 살지 못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난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반가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는 “삶에 지치고 눌린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을 반가이 맞아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길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웃음 띤 얼굴로 “자,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하며 당신의 손을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말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를 따르기 이전에는 그리도 힘들어 보였던 그 결단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것처럼 힘겨워 보이던 제자의 삶이 이제는 너무나 충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께 나아가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단순히 그에게 말을 하십시오. 마치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것처럼 이상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틀림 없이 누군가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도박하듯이 누군가가 거기 있다고 한번 믿어 보십시오. 이것은 이길 것이 확실한 도박입니다. 당신이 말을 걸고 있는 상대는 모호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그리고 다시 살아난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신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그에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염려해 주고 나를 사랑하며
당신의 친구이자 제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내 삶에는 깨끗이 청소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직도 제게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죄악을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이런 기도만 드리면 예수는 생생한 실재로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복음서는 이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과거에 당신을 사로잡고 현혹시키던 모든 잘못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방향전환을 뜻합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기도할 때 적절한 말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의심을 처리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뒤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의심의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와 각오를 갖춰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믿고 나서 의심이 생기면 당신의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는 예수의 약속들을 가지고 대처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당신은 분명히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는 당신을 결코 내어 쫓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마음에 새겨질때까지 거듭거듭 되뇌어 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에서 특별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이 약속은 내게 너무도 중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를 실망시키거나 잊어버리거나 저버렸을 때까지도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들은 처음 믿는 이들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됩니다.

의심이 닥칠 때면 예수께서 그 신비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와 실패를 다 처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점을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 “그것 봐, 아무 소용없지. 넌 또 그 모양이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뭐 달라진 게 있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가장 즐기는 일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에게 대답하십시오. “그래,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난 또 실패했어. 하지만 나는 이미 주님께 고백했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악의 결과들을 완전히 처리하셨다구. 그러니 넌 내 믿음을 흔들 수 없어. 자, 이제 일어나서 더 지혜로운 제자의 길을 계속 가야겠다.”

새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신약성경은 우리가 왕이신 그 분께 복종함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해묵은 짐을 벗은 듯한 홀가분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데서 오는 잔잔한 기쁨, 혹은 마침내 바른 길로 돌아와서 누리게 되는 심오한 평화를 체험합니다.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와 동행하는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격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경우는 몸에 배어버린 지 오래된 추잡한 말버릇을 거짓말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중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는, 이른바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많은 이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귀기를 즐기기도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 사귀기가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제 한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느낌이 없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에게 맡기면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감정들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말한 것 같은 표지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나라로 온 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신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에게는 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당신에게 기쁨과 평화, 권세가 주어지고, 확신과 교제가 허락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의 나라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순서에 매이거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주어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균등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의 독특한 개인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성품이 아니라 수공품인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께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그는 가만히 다가와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당신이 정말 그를 만났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장소는 그 분이 정합니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기대하십시오.

10 장.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삶을 예수에게 맡겼을 때 교회와 나는 어떤 관련을 맺게 됩니까? 우리의 경험과 배경, 편견이 얽히고 나면 이 질문은 뜻밖에도 혼란스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에 교회에 다녀 본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림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끼워 넣을 그림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예수와 교회의 관계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는 교회가 생기라라는 것을 예견했을까요?

예수가 교회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놓고 학자들은 제각기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는데 결국 생긴 것은 교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재미는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에게는 순수한 의미에서 개인적인 종교라는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기에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서 시작되지 않는 기독교는 실제로는 시작조차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에게서 멈추어 버린 기독교는 이미 끝장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은 고독한 여로처럼 보이지만, 일단 회개의 좁은 문을 들어서고 나면 기쁨에 겨운 동행객이 수없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예견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선택했습니다. 12 라는 숫자는 대단히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는 언젠가 이 열두 제자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는 '교회'라는 말을 두

번이나 직접 사용했습니다. 한번은 베드로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예수는 그 반석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지옥의 힘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에서 메시아는 메시아 공동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자신이 메시아의 호칭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을 사용했을 때 그는 더 나아가 메시아가 주관할 메시아 공동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그 공동체를 '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이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분이 세우고 이끄는 공동체이며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의 일을 계속해 나갈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역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예수가 분쟁을 조정하는 일에 관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제가 너희를 괴롭게 하거든 조용히 개인적으로 말해 주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위치를 박탈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과 마찬가지로 대접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 뒤에 일어날 교회를 예견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속하게 될 신앙공동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교회가 사람들을 훈계하고 다스리라는 것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교회를 예견했고, 그의 목적안에 교회가 포함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의 마음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 추측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떤 새로운 사회가 필요치 않게 되길 바랐을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두 기쁘게 하나님 나라로 온다면 새로운 사회가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을 볼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는 것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인 예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먹구름처럼 모여들고 죽음의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이러한 생각은 그의 마음속을 점점 더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작은 양무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양무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부여하시려 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그의 제자들을 그 나무에 달린 가지로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공동체적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의 제자들은 그 성전을 이룬 돌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그의 제자들은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가르친 제자의 삶에서 공동체적 특징을 버릴 방도는 없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려 오지 않았습다. 신약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러 왔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며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예수가 원했던 교회의 모습

예수는 어떤 교회를 원했을까요? 다행히 그 대답이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요한복음 17 장에 보면 체포되어 재판받기 바로 전날 밤 예수가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가 교회에 기대했던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직접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그것이 곧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영화롭게'했듯이 그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그것이 곧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영화롭게'했듯이 그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관련된 말로써, 하나님의 순전한 빛이 당신의 삶에 반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은 분명 뭔가 다른 데가 있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말씀이 주는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분명한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그저 훌륭한 교사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듯 서로 연합된 삶들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확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같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속해 있는 그것이 연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는 교회가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에게 속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그가 자신들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난 은둔자도 아니고 세상에 흠뻑 젖어든 속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범하지 않은 능력과 사랑, 그리고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누린 기쁨을 똑같이 누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따금씩 슬픔과 외로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스리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죽기까지 했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상황이 힘들 때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듯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견뎌냈듯이 견뎌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내는 표지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우선권을 두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가 그러했듯이 이방인이며 나그네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변혁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이 세상이 최종적 안식처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친지동료를 위해, 자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사람들로 이루어 집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태도를 찾고 싶어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또 다음주에 되풀이되는 예배 의식을 기다리는 이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가치한 대상에게도 아낌없이 부어졌던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참 제자의 특징이며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의 '성령'이라고 불렀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들 안에 와서 살면서 그 향기를 내뿜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발견하고 그에게 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예수의 본향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보다 못한 것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과 현실

교회가 본래 갖추어야 할 모습은 정말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그와 동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할 일은 예수께서 교회를 포기한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에 덤빌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아님 예수 그 분이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정화하고 인도해 줍니다. 우리에게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한 영토이고,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께 삶을 맡기고 그의 교제에 동참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과 나는 바로 이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저부터 벌써 손을 떼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따라 살고자 하는 곳입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각양 깃발을 걸고 행진하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대에 속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배경과 견해와 기질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복종하는 것, 다른 부대와 다툼을 벌이는 웅졸함을 버리고 각기 독특한 전통을 존중해 주면서 단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묶어주는 공통점이 우리를 구별하는 차이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좀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는 교회에 지상에서 그의 일을 계속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20 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1 세기의 열두 제자처럼 될 수 있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의 제자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스스로 예수를 선택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가 제자들을 정하고 불렀으며 그들은 예수의 부름에 응답했을 뿐인 것입니다. 주도권은 예수께 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 예수가 당신을 불러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선택했다는 이 믿음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 위로를, 성공했을 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주인 되시는 이가 선택해서 시킨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확신의 근거입니다. 제자들에게 했던 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열매를 맺도록 보냈다”(요한복음 15:16 참조). 두번째로 제자는 주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가 열두 제자를 택했을 때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기 위해, 그리고 전도자로 보냄을 받기 위해”(마가복음 3:14 참조) 선택되었습니다. 이 순서에 주의하십시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예수는 그저 자신의 일을 수행할 로봇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를 알고 사랑하며 그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제자로서의 성장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제자의 삶을 원한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세번째로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본래 배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복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사람임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섭취해야’합니다.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복음서보다 먼저 주어진 구약성경과 복음서 후에 쓰여진 신약서신들을 함께 소화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커다란 문제점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으며, 환경 문제나 조세 제도, 결혼과 이혼, 낙태 등 사회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에 예수의 가르침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정책에 관해 무지한 외교관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살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은 말 그대로 만들어 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도록 도와주는 여러 책들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번째로 제자는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한 주인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경험을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일만 챙기는 개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일을 하되 함께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인을 함께 높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비공식적인

만남이나 성경공부, 기도 시간, 틀에 매이지 않은 예배,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와 걱정을 나누는 일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인을 함께 높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사치가 아니라 삶의 필수품인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명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힘겨운 순종이 포함됩니다. 일요일마다 고상한 가르침에 귀기울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일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행하라고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그가 우리를 택했고 우리가 그를 택했다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는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기념하라고 명했습니다. 성찬식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중대한 표지일 뿐 아니라 그의 힘을 우리가 얻게끔 돕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특별히 명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이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며, 제자로서의 삶이 더 깊어지고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제자들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인의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자는 하릴없이 어슬렁거리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일꾼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면은 우리가 봉사의 삶을 통해서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봉사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를 위해 일할 때 우리 자신이 성장하며, 그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확고해지며, 우리의 능력이 증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위대한 일 중의 하나는 그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자신의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선 증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술 할 뿐입니다. 바로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겪은 삶의 변화에 대해 부끄럼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은 이들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를 섬기는 데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위해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인권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나 교도소 개혁운동 등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 할 어두운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그를 따르는 제자들뿐입니다.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제자는 “주님 당신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모든 제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은 예수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도 같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를

즐겁고도 자유케 하는 목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연인들이 빛나는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즉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역설이지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법조항이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잘해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 제가 무얼 해야 할까요?”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해답은 명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일 뿐 아니라 지고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지닌 소명입니다.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예수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살아있는 ‘진짜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 불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자신의 영이신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처럼 이 영은 제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가 지상에 계셨을 때 이 성령은 그의 인격과 언행 속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죽음과 부활을 거쳐 그의 육체가 하늘로 되돌아간 이후로는 그를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순절 이후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일을 체험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 앞에 나올 때, 그는 단지 우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교훈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를 곁에 모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안에 모시고 있습시다. 이것은 오순절 이전까지는 사도들조차 체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 교회의 소명, 교회가 실패한 점, 제자로서 우리의 과제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져봅시다. 예수 안에 계셨던 그 영이 이제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켰던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만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행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11 장. 예수에 관해 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예수가 행했다고 하는 초자연적 현상들에 회의의 눈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는 여전히 그 누구보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에 관한 책과 영화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책과 영화들에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놀아났든가, 그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말하기 좋아하는 현대적 경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반문화주의 반항아로, 동성연애자로, 부르주아 특권층에 항거한 AD 2 세기의 혁명지도자로, 아니면 마약에 취하고 몽환에 잠긴 사교집단의 교주쯤으로 묘사하는 입장도 드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실제로 존재한 일이 없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짐짓 무시해 버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놀라운 인물에 대해 분명하고도 일관적인 그림을 그려낼 만한 증거가 기독교 안팎에 상당히 많다고 말한다면 놀랄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 외부의 증거를 살펴봅시다.

그리스-로마

첫째로 로마 초기의 저술가들에게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교양있는 부호가 유대 변방에서 나서 죽은 한 목수청년에 관해 무슨 기록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AD 115 년, 로마 왕정 초기의 위대한 역사가인 타키투스(Tacitus)가 각 황제 치하에서 발생한 중대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봅시다. 타키투스는 64 년 로마시 상당 지역을 불살라 버린 대화재 사건을 다루면서, 네로가 로마시 중앙부에 자신의 왕궁터를 넓히기 위해 화재를 일으켰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추잡한 짓을 한다고 알려진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혐의자로 체포하고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들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을 당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처형된 바 있다. 과거 단속을 받은 일이 있는 이 사교집단은 이제 그 근원지인 유대에서만 아니라 온세상의 잡스런 사상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현혹하는 로마시 도처에서도 다시금 싹을 틔우고 있다(<일지 Annals> 15.44).

타키투스가 기독교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태우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는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Tiberius) 황제 치하 (AD 14-37) 유대에서 태어났고 빌라도(재임기간 26~36)의 지시로

처형을 받았다는 것, 대단한 수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의 종교가 AD60 년 경 무렵에는 로마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자 타키투스는 AD112 년 그리스도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시아의 총독으로 있었으므로 기독교의 기원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키투스가 지은 <역사>(Histories)라는 책은 손실되었지만 후대의 저술에 그 일부가 인용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되었지만 상당한 정도로 독자적인 위치를 굳혔다는 것과, 로마의 티투스(Titus)장군이 AD70 년의 예루살렘 성전파괴를 통해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를 말살시키려 했다고 증언합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이 더 보존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그의 글은 보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언급한 유일한 세속 문서인 것입니다! 타키투스와 동시대인인 플리니우스(Plinius)역시 상당한 학식을 갖춘 인물로서, 112 년 당시 터키 북부 비투니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걱정적인 관료였던 플리니우스는 황제 트라야누스(Trajanus)에게 상당한 양의 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적은 긴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기독교가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으며, 기독교도들 때문에 이교도 신전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고 축제일은 관심 밖으로 버려졌으며 희생제물로 쓸 동물들의 수요가 하락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임을 자인한 몇 명을 처형해 버렸지만 종내 마음이 꺾끄러웠고, 그래서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조사해 보니 문제 삼을 행동을 저지른 증거가 전혀 없었고, 혐의란 단지 황제의 동상이나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것과 정해진 날(일요일)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찬송을 드린다는 것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플리니우스는 그들의 삶이 사기나 간음, 절도, 혹은 부정적의 기미가 없는 극히 모범적인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누는 식탁에는 그저 평범한 음식이 오를 뿐, 그리스도인들의 수사법처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식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도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플리니우스는 예수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운동’이 흑해 연안의 식민통치구역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총독의 증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모임, 황제에게도 굽히지 않는 신조, 무해한 예배의식, 그리고 기독교의 놀랄 만한 확산 등이 그 예입니다<플리니우스, <서간문 Letters> 10.96).

플리니우스나 타키투스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저술가의 증언은 예수의 역사성을 확실히 해주는 동시에, 복음서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예수에 관한 증거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보다 더 초기의 기록들도 발견됩니다. 사마리아의 역사가 탈루스(Thallus)는 AD52 년 경 로마에서 저술 활동을 했는데,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중시하여 자신의 세계사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임했던 어두움은 일식작용의 결과라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인 마라 바 세라피온(Mara bar Serapion)은 70-80 년 사이에 쓴 옥중서간에서 ‘그처럼 지혜로운 이’를 꺾박한 자가 당할 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아테네인들이 얻은 것이라곤 기근과 질병뿐이었듯이 자신들의 왕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얻을 것은 수도의 함락과 국가의 분산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예수와 그의 죽음뿐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의 주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라피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증거

예수에 관한 증거는 유대교 내에서도 발견됩니다. AD 66 년에서 70 년 사이 로마에 대항한 반군 게릴라 지도자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us Josepus)는 후에 역사가로 변신해 로마인들 앞에서 자신의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한 저술활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책 속에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름들, 즉 헤롯, 가야바, 세레요한, ‘예수 - 이른바 그리스도 - 의 형제’ 야고보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아래의 기술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빌라도 재임기: AD 26 ~ 36) 지혜로운 사람 예수 - 만일 그를 정말 사람이라고 불려야 한다면 - 가 등장했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자들의 스승으로서,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리스도(메시아)였다.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를 접한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던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 무리들은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대기록 Antiquities> 18.3.3.).

요세푸스처럼 기독교에 적대적인 인물에게서 이런 증언이 발견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며, 그로 인해 이 기록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요세푸스 사본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며 그가 쓴 다른 글들처럼 입증된 기록입니다. ‘만일 그를 정말 사람이라고 불려야 한다면’과 같은 기록은 사실 냉소적이며, ‘그는 그리스도였다’라는 말도 십자가에 붙은 명패의 문구를 그저 옮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자체는 본문의 진위를 의심할 나위 없는 요세푸스의 것으로서,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이며 메시아라는 것, 그의 지혜, 교훈, 기적들, 그에게 나아온 개종자들,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간접으로 예수를 언급한 기록을 랍비들의 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서 한결같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출생이 그들 눈에도 무언가 다르게 보였다는 것은 예수를 ‘판테라의 아들 예수’ (Jeshua ben Panthera)라고 부른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를 마리아와 로마 군인 판테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중상모략하려는 유대인의 이도가 반영된 말일 수도 있고, ‘처녀’를 가리키는 희랍어 ‘팔테노스’(Phalthenos)라고 적은 본문이 와전되어 생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기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마술을 부려 이스라엘을 현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의 제자들이 굳게 결속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마태라는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월절 기간에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신성을 수유한 존재라고 주장했고, 역사의 종점에서 심판주로 재림하리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도 명백히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고고학은 로마와 유대교 양측의 증언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헤르쿨라니움은 AD 79 년 베수비우스 화산 대폭발 때 폼페이와 함께 매몰된 도시인데, 여기에는 조그만 가정교회의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교회당 벽에는 십자가를 떼어낸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집주인이 불길을 피해 탈출하면서 자신에게 소중했던 십자가를 지니고 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유명한 로타스-사토르 정방형(Roras-Aator square)에는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을 라틴어로 기록한 암호문이 있습니다. 이 암호문은 앞뒤 어느 쪽으로 읽어도 같은 말이 되도록 만들어졌는데, 글자 그대로 보아서는 도무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양의 비문들이 기독교 유적 여러 곳에서 발굴 된 것으로 보아 이 암호문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정방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R O T A S
O P E R A
T E N E T
A R E P O
S A T O R

글자 그대로 보면 '씨뿌리는 사람 아레포가 바퀴를 조심스럽게 잡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 해석은 별로 그럴 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다시 배열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A
P
A
T
E
R
A P A T E R N O S T E R O
O
S

T
E
R
O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비할 데 없는 분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또한 십자 형태는 십자가의 중심성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글자와 마지막 글자로서 알파와 오메가를 가리키는 A 와 O 는 곧 우주의 근원이자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위치를 가리킵니다. 이 해석이 너무 꾸며낸 것처럼 들린다면, 원래 로타스-사토르의 정방형에서 T 가 언제나 A 와 O 사이에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T 는 십자가와 모양이 비슷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 십자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T 가 언제나 A 와 O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반영합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불과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이런 유적이 발견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흥미를 끄는 고고학적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발견된 한 비문은 황제의 칙령을 기록한 것인데, 무덤을 도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Tiberius, AD 14 ~37)나 클로디우스 (Claudius, AD 41~54)황제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연대가 예수의 처형 직후라는 점, 형벌의 과중함 (도굴은 일반적으로 사형을 받을 만큼 중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유품이 발견된 장소가 예수의 고향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칙령이 예수의 부활사건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응조치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폭동 주동자’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황제들은 그런 인물들에게 관심이 많은 법입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마태복음 28 장 11 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자들이 무덤에 와 경비병들이 잠든 기회를 틈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실수를 자인하기란 당혹스런 일이었겠지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시인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요!

‘물고기’ 상징은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간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익수스(IXO-YΣ)의 첫글자는 각각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췌우 휘오스 소테르’의 첫글자를 짜맞춘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을 명확하고도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초기부터 퍼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의 발견 중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는 이스라엘 고고학자인 수케닉(Sukenik)이 1945 에 발굴한 무덤을 들 수 있습니다. 봉인된 이 무덤은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도굴꾼의 손을 용케 피해 보존되었고, 현재 예루살렘에 그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AD 50 년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전과 유골함이 있는데, 그 함의 겉면에 예수의 이름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희랍어로 된 그 내용은 ‘예부여, 도와주소서’와 ‘예수여, 그를 일으키소서’의 두 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놓고 열띤 논쟁이 있었지만, 이 글귀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수케닉 교수의 해석이 아직도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도와주는 예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예수라는 존재에 관한 신앙고백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가 부활한 지 20년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론

로마와 유대교, 그리고 고고학의 증거를 통해 예수의 역사성, 그의 특이한 출생과정, 가르침과 기적, 그의 제자들, 그가 주장한 메시아의 신분, 십자가 처형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서안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의 윤곽을 따라가 봅시다.

12 장. 복음서는 믿을 만한 책입니까?

우리가 예수에 관해 가진 지식의 대부분은 복음서라고 불리는 네권의 작은 책에서 얻은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를 고립된 인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의 성취이자 정점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복음서 저자들의 생각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일 복음서의 기록이 거짓말에 불과하다면 예수에 관해 그 밖에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복음서만큼 광범위하게 예수를 다루고 있는 초기 문서는 없습니다. 반면 이들 기록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간뿐 아니라 제자가 되라는 그의 부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무심히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성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한 권위가 있는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권위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현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 어린 책이 있으며 그 책의 내용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낯설 뿐 아니라 매우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나는 복음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인도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라 처음부터 이런 관점을 가지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권위 있는 신문의 기사를 대할 때와 똑같은 신뢰감으로 복음서를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 주인공과 그 인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서는 어떤 책입니까?

첫째로, 복음서는 어떤 책입니까? 과거 250 년 동안 이 짝막한 문서를 놓고 그리스도인, 유대교인, 불가지론자에서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복음서가 전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학 양식이라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같은 종류의 책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력이라는 화산에서 새롭게 터져나온 용암과 같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전기가 아닙니다. 저자들은 다른 전기와 달리 예수의 일생을 세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역사서도 아닙니다. 복음서는 다른 역사서와 달리 당시의 상황을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자들은 예수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기나 역사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은 와전히 새로운 장르를 이룹니다. 복음서 자체가 하나의 문학 장르인 셈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 전에도 종종 사용되었지만,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전한 내용을 가리키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글로 쓴 것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의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선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친구인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믿었기에, 그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그토록 선교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었는지, 복음서의 거의 모든 이야기에 확신과 부활의 믿음이 배어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편견이 있었다거나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발견으로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로 전하는 메시지에서 글로 기록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예수에 대한 글을 보면 초기의 전도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를 실제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저자의 개인적 권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지런히 설교하고 있었던 좋은 소식들을 한사람 한사람이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저자의 배후에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으며, 저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및 그 주변 인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네 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AD 60 년으로 추정됩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여기는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모두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면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해석해서 책으로 엮어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정보를 준 사람이 모든 일의 핵심에 있었던 베드로였다는 점은

그의 기록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해 줍니다. 마가는 예수가 한 일과 그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과 맞섰는지를 중심으로 긴박감과 열정이 넘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설교 자료들이 글로 옮겨져 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에게서 마가가 전해 받았을 직접적인 목격담이 생생하게 실려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뒤이어 몇 년 내에 마태복음이 등장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제자가 된 유대인들과 이미 교회에 몰려든 그리스인 신자들을 융합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조직적인 필치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를 저자로 알고 있었지만,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한 것을 보면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예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한 마태가 예수와 동행한 일이 없는 사람의 기록에 의존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가 마태의 이름을 딴 것은 마태에게서 유래한 특별한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가 수집한 예수의 어록 중 상당수는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리 마태는 예수의 어록을 기록으로 남길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고대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속기술과 필치를 갖추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목격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AD 80년대 초쯤(어떤 이들은 60년대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누가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방인 신도들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누가는 원래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들을 통해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거쳐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의 어록이 누가가 사용한 주 자료였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초기 기록은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채록된 것으로 보이며, 예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목격자들에게서 얻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비유를 전하는 데 각별한 솜씨를 발휘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기억에 남는 우화들은 거의 누가복음에서 발견됩니다. 누가는 또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여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공헌이라면 복음서의 제 2 부라 할 사도행전의 저술을 통해 예수의 이야기를 교회의 이야기로 연결해 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복음서 중 가장 신비하고 웅장한 인상을 주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와 가장 친밀했던 제자로서 신비주의적 경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삶과 사역에 관해 놀랍도록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리는 예수가 다른 복음서의 예수와 동일한 인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의 마음속을 가장 깊숙이 이해한 사람이었으리라는 것은 근거 있는 추측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복음서를 요한 자신이 적었거나, 그의 지도하에 제자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던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보지만, 현재까지의 정설에 따르면 네 복음서 중 가장 후대에, 즉 사도 요한이 아시아 교회를 돌보던 80년대에 이르러서야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복음서의 개략입니다. 그 저술연대는 65년에서 85년 사이 이고, 초대교회에서 저자로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의 정확한 신분은 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저자의 익명성은 얼핏 생각하듯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 전체의 살아있는 확신으로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이런 뜻에서 믿음이라는 빙상의 일각, 또는 수면 밑에 숨어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거대한 공동체라는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에 대해 궁금한 문제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후대에 가서야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에 비해 그 기록 자체가 상당히 후대에서야 이루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는 별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라는 새 종교운동의 확산은 실로 놀랄 만큼 폭발적이었으므로, 최우선 과제는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고대문화에서는 구전된 말씀이 기록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를 가릴 것 없이 훌륭한 암기력은 대단한 자랑거리로 받아들여졌으며, 책은 대체로 암기력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쇄술이 없던 시절, 책의 생산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AD 60 년대에 이르러 예수를 목격한 증인들의 세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해 받은 소중한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복음서는 네 권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 복음서를 네 권이나 남겨야 했을까요? 흥미롭게도 똑같은 질문을 이미 AD 2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는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4 복음이어야지. 계절도 넷이고 나침반에도 네 극점이 있지 않은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답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이 4 복음서가 모두 초대교회의 중심에서 생성된 것이라고만 말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는 여러 자자의 기록이 남은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며, 얼핏 보기에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내용들도 사실은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진을 네 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초상화를 네 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장의 초상화로 바라보는 것보다 얼마나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본문이 후대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요?

이 복음서들은 과연 본래 기록된 대로 보존되었을까요, 아니면 후대에 들어 누군가의 손에 훼손을 당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쾌합니다. 고대의 어떤 문서도 복음서만큼 풍부한 사본이 전해진 경우는 없습니다. 오래된 사본의 경우는 본래 저작시기에서 불과 1 세기도 지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비슷한 시기의 여타 고전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서보다도 50 여 년 후에 기록된 타키투스의 작품을 보면 현재까지 보존된 가장 오래된 사본은 무려 800 년 후의 것이며, 복음 전도자들과 동시대인이었던 역사가 리비(Livy)의 경우는 그 간격이 1100 년으로 넓어집니다. 이들의 사본은 다 합쳐봐야 두셋에 지나지 않지만 신약성경의 사본은 수백 점에 이르며, 여러 언어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증거가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들 사본에 기록된 신약성경의 본문은 놀랄 만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원문에 관해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 두 가지에 동의할 것입니다. 즉 사본들간의 차이점들이 신약의 교리를 좌우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과, 신약본문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고전 작품에서처럼 능력 있는 학자들이 임의로 추측해서 수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본문에 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경우로는, 마가복음 16 장 9 절에서 20 절이 사도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첨가인지에 관한 논쟁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기사가 전통대로 요한복음 7 장 53 절에서 8 장 11 절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사본의 경우처럼 누가복음 21 장 38 절 후에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수세기에 걸쳐 계속적이면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복음서가 그 저자에 의해 쓰여진 거의 그대로 전해 내려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에 관해 깜짝 놀랄 만한 주장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대답은 각자의 결단에 달려있지만 복음서의 기록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이 지상의 문서들 중 복음서만큼 수세기에 걸쳐 엄밀하기 이를 데 없는 연구의 대상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복음서의 신뢰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서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놀랄 만큼 서로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복음서 상호간은 물론 초대교회의 설교가 기록된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런 유사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의논한 일이 없는 저자들간에 이런 일관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서의 내용을 조작해 낸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로 복음서의 기록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일반 역사의 증거와 일치함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일반 역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공백을 채워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역사상의 예수에 관해 여기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최초의 복음서가 기록되기 10년 정도 이전인 AD 50~60년에 자신의 서신들을 기록했는데, 그가 남긴 예수에 관한 언급은 놀랄 만큼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예수에 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으며, 단지 그들이 이미 오래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들었던 사실들을 상기 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신뢰성을 말해주는 데 이보다 더 오래되고 믿음직한 증거는 달리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의 사역을 보고 들은 증인들이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것도 복음서의 신뢰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언행을 부풀려 말할 경우 즉시 그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사실을 과장했다면 복음서는 도저히 널리 읽힐 수도, 신뢰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짧은 책들의 신빙성을 조사할 방법은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의 내용을 조작했다면, 예수의 말을 빌어 교회 자신의 관심사를 언급했을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서는 그런 문제들, 즉 예수의 주되심, 성령과 그 은사, 할례의 의의, 성도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진실만을 기록했다는 점을 깊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를 연구해 보면 복음서의 신빙성이 한층 분명해집니다. 이 비유들이 예수 자신의 것인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작품인지를 놓고 한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정말 비유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남다른 방법으로 가르쳤다고 굳이 거짓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또한 예수가 아니라면 이 비유들을 만들어 낼 만큼 천재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몇몇 랍비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처럼 비유로 가르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유를 사용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유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신약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의 다중성'(criterion of **multifarious attestation**)으로서, 어떤 사건이나 말이 하나 이상의 복음서에서 나타날 경우 그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예수가 빵 몇 조각과 물고기 몇 마리로 5천 명을 먹었다는 기록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믿기 어려워 보이는 이 이야기는 4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증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또 다른 도구는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의 공용어였던 아람어입니다. 예수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아람어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아람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희랍어로 기록된 예수의 교훈들을 아람어로 되바꾸어 놓을 경우 보기 드물게 아름답고도 기억하기 쉬운 운율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복음서가 예수의

가르침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암송에 의해 교육을 받았는데, 복음서 곳곳에 깔려있는 아람어 운율(이따금 ‘달리다굽’이나 ‘아바’ 등의 표현으로 직접 드러나기도 합니다)은 기억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이 주의 깊게 기억되고 전수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결론

이상이 복음서의 기록이 믿을 만하다는 근거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복음서의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기록은 세상 역사의 자료들과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대의 유대 풍습과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훑어보면 그 근거에 깔려 있는 아람어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은 모국어인 예수의 실제 말과 행동에 우리가 아주 근접해 있다는 확실한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들이 어떻게 서로를 보충해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본문의 신뢰도는 너무도 확실해서 후대의 변조 가능성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일반 역사가들이 복음서의 기록을 대단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의 모습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모습을 조작해 낼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서는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른 숭고하고 탁월한 한 인간을 보여 줍니다. 당신이 친구 세 명과 둘러앉아 이상적인 인간형을 묘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제각기 다른 모습을 그려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4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모습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역사에 실존했던 한 인물, 한 이상을 지니고 같은 품성을 나타냈던 사람, 똑같은 가르침과 자기주장을 펼친 한 사람의 존재를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복음서 저자들은 허구가 아닌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토록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예수라는 인물을 정직하게 묘사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인격과 그가 제시한 구원, 그가 던진 도전들을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서의 변치 않는 힘이 있습니다.

-끝-